



2013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 ●
CONTENTS

발간사

008



최우수

- CAMPUS ASIA: RISK에서 OPPORTUNITY로!

김혜연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012

- A New Perspective to Think about the East Asia

Xie Wei_Fudan University

019



우수

- 나는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싶다

고소진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049

- My Dramatic Life in Tokyo

최혜민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049

- Campus Asia을 통해 노동·교육정책 전문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다

이보배_대한민국 KDI 국제 정책대학원 개발학과

038

- 동북아시아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서

이유경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049

- 드넓은 만큼 깊기도 깊었던 5개월의 중국, 그리고 그 속의 나

김기현_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055

- 동아시아 공생을 향한 첫걸음, CAMPUS Asia!

김재원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060

- 캠퍼스아시아를 통한 동아시아 고전학의 새로운 구현

박상환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060



2013 한 · 중 · 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CONTENTS

• Discovering Treasures in Korea Zhao Hanyu_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072
• ‘사차극복’의 일본 유학 체험기-CAMPUS Asia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고베 GSICS에서의 유학생생활 체험기 배은지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075
• “The things which I was gifted in Seoul” Daisuke Kato_Graduating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kyo	079
• Dynamic Asia, dynamic Asian 김한별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083
• 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지희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087
• 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곽레지나_대한민국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092
• Questionnaire of CAMPUS Asia Kurotobi Kenji_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Tokyo	096
• 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강애리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01



• 캠퍼스 아시아 –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발걸음 이산웅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08
• 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한보성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11
• CampusAsia시범사업체험수기 서유리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18
• 중국 헌법과 함께 했던 한 학기 이동진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2
• He who travels far knows much Song Zhuoru_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126
• ‘학생시대’의끝자락에서만난학문 · 역사 · 공동체 박형진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아시아학과	131
• ESSAY for CAMPUS Asia 2013 안수영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34
• Newborn Various Angles on China 이다용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1



2013 한 · 중 · 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 ● CONTENTS

• 2013년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이유진_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145	• 6 months in Korea Tomoaki Hirakawa_Mechanical engineering, Kyusyu University	175
• Request for future CAMPUS Asia generations Yoshinobu Watanabe_Master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kyo	150	• Memorable Days in Korea HUANG YIKUN_Mechanical Engineering,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179
• 共存共榮의 동아시아를 꿈꾸며 김백경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3	• 한국과 인연부터 동북아시아와 인연까지 Junchao Chen_중국 복단대학교	183
• 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민경식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158	• Campus Asia Program– the Path to Mutual Understanding and Regional Identity Jia Li_Kobe University	186
• 캠퍼스 아시아에서 얻은 韓中日간의 배려와 이해 차영혜_대한민국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163	• CAMPUS Asia Essay ZHOU Mi_Tsinghua University	189
• Precious experience in Korea Akira Arakawa_Mechanical engineering, Kyusyu University	167		
• ESSAY for CAMPUS Asia 2013 Cao Shuye_International Politics, Peking University	171		

발간사



한중일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시범사업은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 둘째 해'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체험수기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서른일곱명의 열정과 도전이 향후 CAMPUS Asia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될 대학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체험수기집 발간 등은 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사업단간 정보교류,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판 에라스무스(ERASMUS: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로 동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3국 대학에서 학점 상호인정을 받거나 공동·복수학위 취득, 인턴쉽 등의 교류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동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 거 석**

2013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최우수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CAMPUS ASIA: RISK에서 OPPORTUNITY로!



김혜연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복단대 - 고베대)

RISK 1: LIFE IS FULL OF UNCERTAINTY

Risk Management공부를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uncertainty)를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참으로 녹록치 않다는 것을 머리로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이 곳, 고베에서Campus Asia 체험 수기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단 한번도 계획하거나 예상 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우연이 얹히고 얹혀 나 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것은 운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국제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동남아 지역 개발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한국인으로서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꿈을 품고 태국에 주재한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s for Asia and Pacific)에서 인턴쉽 중, 2011년 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한 대홍수를 경험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강수량의 증가로 평범했던 삶의 터전은 곧 생과사의 전쟁터로 변했고, 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핵심영역, 즉, 개인의 인권, 환경,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이 경험 통해 한낱 연약한 인간이 자연의 힘에 완벽히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연에 예측, 방재능력을 기르고 효과적으로 대처, 재건하는 정책, 기술, 시민 의식이 뒷받침 되어 국가, 지역사회, 시민이 힘을 합쳐 피해를 줄이는 것은 오롯이 인간인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과 아이티의 지진을 비교하면, 일본의 지진 강도가 아이티 보다 더 강했지만(magnitude 9.0 vs 7.0) 사상자 수는 무려 20배가 적었다. 물론 두 국가를 정치, 경제, 사회 발전 수준 등을 고

려하지 않고 엄밀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국가가 얼마나 방재와 피해 최소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력을 쏟고 있는지에 따라

피해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resilience)은 국가의 개발 수준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은 비슷한 강도의 재난 재해에도 선진국보다 훨씬 취약하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오랜 관심사인 동남아 지역은 홍수, 지진, 태풍, 쓰나미 등 다양하고 빈번한 자연재해에 늘 노출되어있는 지역이다. 특히나, '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자연 재해 위기관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개인적 재해 경험을 통해 열망으로 바뀌었고 이 무렵,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중일 협력 프로그램, CAMPUS ASIA를 알게 되었다. 마치, 운명처럼.

RISK 2: CAMPUS ASIA PROGRAM

논문학기(마지막 4학기)의 시작을 마주한 3월, 앞으로 여행은 당분간 꿈도 못 꿀 것임에 논문에 온전히 집중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하고자 다짐했다. 우연히 일본 간사이 지방 왕복 3만원 티켓을 발견하고 주저 없이 길을 떠났다. 여행을 하는 내내 막연히 이 지방에서 머물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순간, Campus Asia모집기간이 이 즈음 인 것을 생각해 내고 귀국하자마자 학교에 문의하니 바로 다음날 지원자 모집 공고가 떴다. 이 완벽한 타이밍에도, 위기가 있었다. 4학기 재학 중인 나는 지원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지원해서 선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주위의 만류에도 나는 휴학이라는 Risk를 선택하고 문을 두드렸다. 위기(Risk)가 기회(Opportunity)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과거부터 크고 작은 자연 재해의 빈번한 경험으로 상대적으로 재난방재, 대책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



RMC ACTIVITIES

는 일본에서 자연재해 위기관리의 노하우와 교훈을 배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동남아 국가나,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한국에 전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 위기를 감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다.

RISK = OPPORTUNITY

고베대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깊이 깨닫는다. Disaster Risk Management를 공부하기에 고베 만큼 최적의 장소는 없을 것이다.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경험을 통해, 시민사회부터 지역 정부까지

다양한 방재 교육, 재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사회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추모 하는 등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현재를 사는 그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닫는 바가 많다. 1995 대지진 발생 시 자원봉사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할 만큼 이례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몰



RMC ACTIVITIES

려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CBO, NPO, NGO등의 조직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다. 고베대에서도 2011 동일본 대지진의 재건을 위해 현재까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조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자연재해 위기 관리에 대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고, 직접 지진을 경험한 시민들의 방재 중요성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도 또한 아직까지 이어지는 재건, 복구의 현장에



RMC ACTIVITIES

머무르며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배우지 못할 소중한 깨달음이다.

KU-KU STUDENT

KU-KU (Korea University-Kobe University) 복수학위 학생으로 프로그램에 선발된 후 일본으로 오기까지 준비서류, 비자 등은 고베대 Campus Asia 선생님들의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고베대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최고 장점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다. 외국 유학생으로서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 일어 수업, 휴대폰 구입, 구비된 가구와 침구 등등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공부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최근,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혼자 고민하고 앓다가 교수님과 선생님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충분한 휴식과 치료, 공부를 병행할 수 있었다.

또한, KU 생활에서 Risk Management Community (RMC) 활동을 절대 빼 놓을 수 없다. RMC는 위기관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연합하여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지적, 문화적 교류를 나누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일종의 연대다. 작년 고려대에서 파견되었던 이현경 학생을 포함하여 세 명의 학생의 뜻을 모아 설립하였고 올해는 일본학생 두 명을 포함하여 내가 리더로 RMC를 이끌게 되었다. RMC를 통해 현지 학생들과의 밀접한 유대 관계뿐 만 아니라, 위기관리에 관한 지적 교류, 더 나아가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 재난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RMC활동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책에서 배우는 그 어떤 지식보다 값지고 귀하다. 며칠 전이었던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19년 전 1995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에 산노미

아에서 추모행사가 있었다. RMC 멤버들과 이 행사에 자원 봉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참여했는데 추운 겨울 새벽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멤버들이 새벽 세시에 모여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다른 참여자들을 인솔했다. 인상 깊은 점은 우리 RMC 멤버들 뿐 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 희생자들의 가족 등 엄청난 인파가 추모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새벽, 마음을 다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교훈을 마음에 새기려는 모습에 나는 한국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자연재해 위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있고, 발생빈도나 피해 규모가 작았던 한국이지만, 예상치 않게 벌어지는 자연재해에 우

리는 얼마나 준비 되어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방재와 대처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까. 소방방재청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08년 발행되었다는 사실과 방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태반 부족만 봐도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자연재해위기관리의 중요성을 간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양하고 빈번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있는 동남아 개발 도상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경험으로 방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의 빠듯한 예산으로 불확실한 미래(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큰 Risk 부담이라고 판단, 정책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KU-KU 학생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배운 자연재해 위기관리 전문 지식, 재난으로 회복하는 능력 (Resilience)과 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동남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의식,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고 방재에 힘 쓰는 일. 이곳에서 나의 꿈과 비전을 확고히 하는 중이다.

SUGGESTIONS FOR BETTER CAMPUS ASIA PROGRAM

얼마 전 고대로부터 새 학기에 파견되어 오는 학생



CAMPUS ASIA STUDENTS AND STAFFS



CAMPUS ASIA STUDENTS AND STAFFS

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에 왜 지원자가 부족한지, 내가 혜택 받은 프로그램을 많은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누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조심스레 건네본다.

첫 번째,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Campus Asi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Risk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큰 혼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고베대의 경우 지역의 경험상 학교에서 제공하는 위기관리 수업은 총

Disaster Management,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of Mega-earthquake 인데 주로 자연재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Risk는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인재, 금융위기, 사회 위기, 안보 등 다소 포괄적인 개념인데, 자연재해에 포커스를 맞추는 희소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위기의 개념을 아우르는 통합성을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뿌리라고 본다. 시범 사업을 하는 지금 이 뿌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와 성취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안인 것 같다.

두 번째, 일본 방사능, 중국 황사 등 빈번한 환경 문제, 재난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이 위기를



CAMPUS ASIA STUDENTS AND STAFFS



CAMPUS ASIA STUDENTS AND STAFFS

극복하고 기회로 바꾼 선배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지원 전 미리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동반할 수 있고, 중국과 일본으로 각각 파견되어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보교환의 장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 째,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선 과정을 성실히 마친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공부한 위기관리의 전문지식을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활용할 기회가 없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의 위기 아니겠는가.

TO NEXT CAMPUS ASIA STUDENTS

부족하지만 이 수기를 읽고 많은 분들이 미래의 기회를 위해 위기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나 또한 선배들의 체험 수기를 읽고 1지망했던 교환학생에서 복수학위제로 전향했다. 그리고 지금, 과거 나의 위기의 선택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다.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 특히, 단 기간의 교환학생 보다 복수학위제를 적극 추천한다. 1년 안에 학위를 받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risk management를 공부 할 수 있는 최



CAMPUS ASIA STUDENTS AND STAFFS

적의 환경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다. 물론, 그만큼 단기간에 집중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Risk를 감수해야만 한다. 기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감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응원한다.

A New Perspective to Think about the East Asia



Xie Wei Fudan University
(Korea University-Fudan University-Kobe University)

Xie Wei, Inspired by Professor Kim Ki-Jung¹⁾

It never occurred to me to that East Asia should be taken as an entity/union, and I am used to viewing China, Japan or Korean in the background of the whole world within which the power of United States can never be ignored and the endogenous power of the East Asia is contained. In that perspective,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regionalization is not a business of the CJK, but a business of the balance of power of the United States worldwide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one to be blamed for the sluggish situation historically and currently, thus we are passing the buck. Although the idea of Professor Kim Ki-Jung is a little bit idealistic, I would prefer to taking the aspect that the CJK can do something by ourselves to promote the reconciliation and regionalization of the Ea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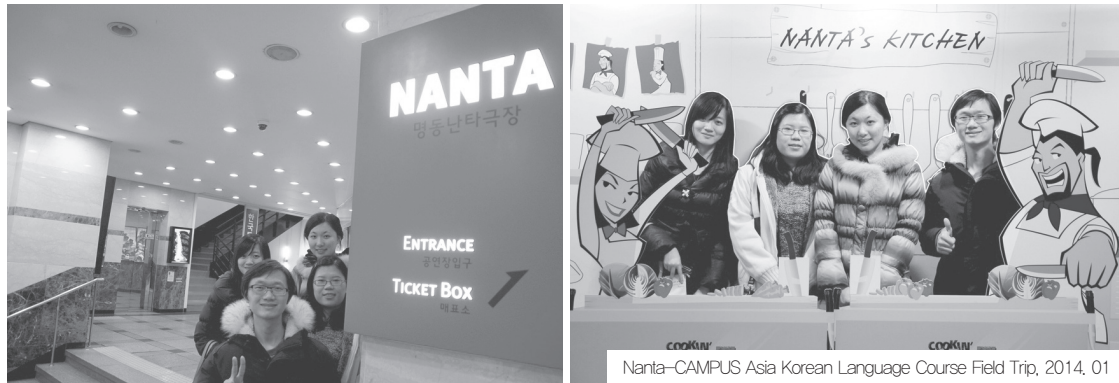
¹⁾ Professor Kim Ki-Jung was invited by CAMPUS Asia team i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GSIS, KU) to give the students of CAMPUS Asia a lecture on Northeast Asian Regional Peace on Jan. 23rd, 2014. I was lucky to participate this lecture and be inspired by Professor Kim and the comments made by other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GSIS, KU.



Our Uniform, 2014, 01
Thanks to Professor Han, Professor Chun, Miss Jung and TA Haeock

which was far away from the original motivation that I held when I applied for the "1+1" exchange in the institution among Fudan University, Kobe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who is one of the substructures of CAMPUS Asia.

Reviewing my application almost 1 year later, I feel shame for my selfishness that I put too much focus on my original research about China's Overseas MNCs. To escape from the



Nanta-CAMPUS Asia Korean Language Course Field Trip, 2014. 01

hectic life in China and focus on my final thesis in a new environment with the utilization of the potential resources Korea University and Kobe University might offer to me was the essential of my motivation and the things like culture exchange and regional affairs were dispensable. Now, I am sorry for that kind of th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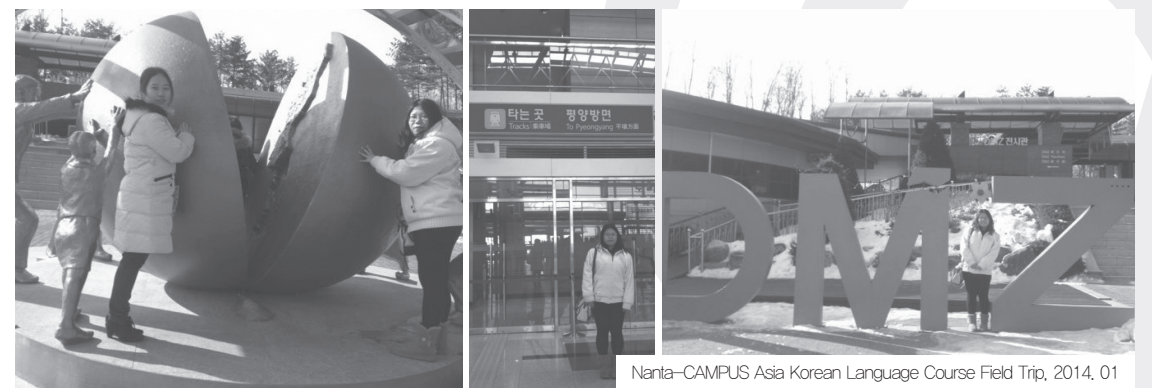
To some extent I am a special case. I applied for the 1+1 exchange program, one semester in Korea University and one semester in Kobe University originally, but I changed to be a dual-degree student in Korea University once I registered in Korea University and accepted the warm reception from both the faculties and the students in GSIS in August, 2013. I had no experience in Kobe University and I am sorry for giving up the chance to exchange in Kobe for another semester. However I am not regretful for that as all the GSIS offered to me beyond my expectation. I really appreciate GSIS's student-oriented principle, guided by which, the faculties offer us with the best they can and keep on improving. The faculties prepared the special

courses, lectures and field trips for CAMPUS Asia.

As the CAMPUS Asia students, besides the ordinary causes open to all, we were offered with a special course in the name of CAMPUS Asia,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eace, in the charge of Professor Chun. In this course, Professor Chun based on her Doctor Paper introduced the concepts of Reconciliation, Peace, Development, and etc. The students from the CJK (4 Chinese students from Fudan University, China, 2 Chinese students and 1 Japanese from Kobe University, and 1 Korean students and 1 American students work for US Army from Korea University can freely present their opinions on the regional issues with substantial illustrations and each of us developed a course essay about the relative issues. I developed an essay on the Peninsula issue. Before I came to Korea, I never looked into this issue in the perspective of North-South Korea Relations exclusively, and I never really tried to understand the formal unification policies offered by both sides. I am used to seeing this in the frame of six-party in which I ignored

the real needs from the Korea(s)²⁾ and Korean. With the supplemental inspirations from another course, The History of Modern Korea, I gained a new sense of Sino-Korea relationship and new view of the Korea Peninsula. For the first time, I feel sorry for what the Koreans were and are suffered from the war and division, and for the first time, I hope I can do something to remit the tense in this area. What's more, Professor Chun and Han also invited other excellent scholars in East Asia issues to give us lectures in leisure time. From those lectures, I absorbed classic conceptions, and new information and research methods. The Formation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 Reality Check given by Dr. Young Chul-Cho (Korea Foundation Visiting Professor, Leiden University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the Netherlands) on Jan.15th, 2014 is based on contextual reading and shows the latest concepts developed by the governments and leaders from the CJK. The research structure is so clear that the ones who are not in this field

can understand easily and the illustration was so powerful that knocked my minded deeply. As we all know recently, the situation in the East Asia is not so stable, and the close track of the new ideas is necessary and the reflection of the realistic perspectives held by some powerful politicians should be taken care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eace given by Professor Kim Ki-Jung from Yonsei University on Jan.24th, 2014 puts the current situations in the East Asia in the 3 basic paradigm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roposes a new role for Korea. This lecture touched me not because of the new role South Korea could play in the new era but the new perspective of thinking about the East Asia issues, the endogenous power not the exogenous should and world play the vital role in regionalization although there is no timeline at the moment. We discussed the rising power of China, the historical issues/conflicts between the three and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 am a big fan of rational debate/discussion, which is in favor of new ideas,



Nanta-CAMPUS Asia Korean Language Course Field Trip, 2014. 01

2) I hope the "s" here could be removed in the future.



Happy Family—CAMPUS Asia students are preparing for dinner together, 2014. 01
Everyone can be a chief Cooking & eating together would be the happiest moment for the students abroad

hypothesis and better demonstrations. I do hope this kind of lectures could be a kind of regular events in the coming new semester.

CAMPUS Asia also provided me with the chances to understand Korea and East Asia as well. I took part in the CAMPUS Asia's Conference in Bussan, Oct. 2013, and the Conference held by GSIS in Nov. 2013. Based on these two conferences, my understanding of CAMPUS Asia was polished. CAMPUS Asia is not only a Collective Action of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CAMPUS), it is a process of the region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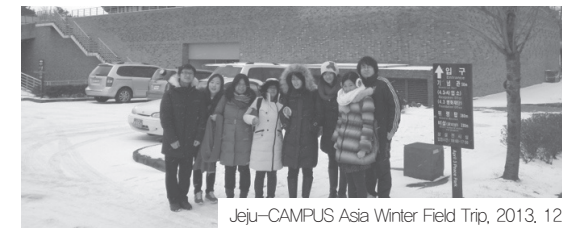
the young generations, who will be the leaders in the futures,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culture, history, norms, kindness and etc. of the others intentionally or unconsciously. I feel sorry for my ignorance of the true meaning of CAMPUS Asia at the beginning, I thought it was just a kind of exchange, especially the program was quite young. I was greatly inspired when Professor Han told us that we might be the ones who promoted the regionalization in the future. Nowadays, I am proud of being a member of this great experiment. Last December, we went to Jeju with the faculties of CAMPUS Asia in GSIS, KU. We visited the Gangjeong Village, Seongeup Folk Village, Namuggun, 4·3 Massacre Museum and etc.. In this trip, I enjoyed the nature and joy of Jeju as well as rethink the valuable democracy the Koreans are enjoying now. What's more I was really surprised at Korean's creativity as anything small in their hand can be something special. I guess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Korea can be one of the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Language is important in communication. Although we use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in CAMPUS Asia, to be a student in this program, learning the language of the host country, in my mind, is a must. I actively took Korean Language I last semester and continued the language course in this winter vacation. The winter course was open for CAMPUS Asia students specially. I still remember five months ago, I could not speak Korean at all and I had to use my body language to tell the taxi driver my destination. Now, I can use

Korean in simple communications and writing.

I am not a bookworm. In China, I was busy with study and internship, but here I am busy with discovering something new in my life, new friends, new places, new dishes and etc.

In the early of Jan. 2014, I participate the survey of CAMPUS Asia with my classmates. We were asked about our opinions on CAMPUS Asia prudently and kindly. In my view, I am really gratefully to all the faculties who devoted to this program. This is the last year of my Master-degree and this is also the best year of my 3-year Master-degree. If there is anything I hope we could improve in the future I think we should polish the program in a more strategic view, for example, clarify the key objects of the program, merge or leverage the resources in every 3-school unit as



Jeju—CAMPUS Asia Winter Field Trip, 2013. 12



CAMPUS Asia Seoul Conference Compound Risk and Regional Collaboration in East Asia 2013. 11

well as in the general level of the program. Let's take the cooperation of Fuda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Kobe University as an example, the curriculum provision does not match with each other, a1) the curriculum in Fudan is full of diversity and the number of English courses is limited which might be a problem for the students from Korea University and Kobe University; a2) we have 3 tracks in Fudan University, they are International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Science. If the dual-degree student from Fudan is not in the track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it is a little bit hard for them to exchange their credit to Korea University "properly". The students from Political Science are good at Political Theories and Domestic Politics while lack of the basic knowled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PUS Asia Conference Busan, 2013, 10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which should be paid attention; b1) According to the discussion with the exchange students from Kobe, I find that Kobe is quite good at economic development and risk management, although we also have risk management in Fudan and Korea, the risk management in my memory in Fudan is more about the security and the risk management in Kobe is more about the rebuilding after the disaster. Luckily, we might find something in common between Kobe and Fudan in public administration; b2) the students from Kobe might find because that each course in Kobe worth 2 credit, there will be some problems to match with

the 3-credit course in Korea University and Fudan University. As at the moments,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students in Fudan University or Kobe University, I am not sure whether they are faced with credits problems in Fudan or Kobe. I think the professors and the officers are aware of these problems already, I hope it can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 following design may be a kind of whimsicality. What if we have a "1+1+1" program? 1 year in Fudan, 1 year in Kobe and 1 year in Korea? If there were chances that as a 3-year Master-degree student from Fudan University who could apply for 1 year exchange



Discovering, 2013, 08~12

in Korea University and 1 year exchange in Kobe University, or as a 3-year Master-degree student of CAMPUS Asia program who can study 1 year in Fudan University, 1 year in Korea University

and 1 year in Kobe University with a degree admitted by three governments and the 3-year program aims at educate the ones who will be the leaders of the regionalization. I would like to apply for that kind of program. And I hope someday, we can share the idea that whomever we were born as, we will die as an Asian.



Love 고려대, 2013 Fall



CAMPUS Asia

체험수기



고소진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 - 킬림대 - 오카야마대)

나는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싶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하교 후 비교적 오랜 시간을 룸메이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친구들과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것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견해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면 비합리적이라 여겨져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친구들과의 많은 대화가 가능했고 대화를 통해 친구들 각자의 자라온 과정이 나와 무척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되니 문제가 생겨도 마찰을 빚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사실을 동아시아권 관계로 넓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래끼리든 서로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의 여타 국가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분쟁은 당연할 것입니다.

문화는 동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가 점차 유연하게 바뀌기 위한 초석은 바로 '서로의 문화 이해하기'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젓가락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라고 불리 운지 오래 되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만큼 공통된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 국가의 공통된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하니 결국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 하여도 사실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것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 중, 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의실에서 책으로 배우다보니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중국, 일본 양 국의 교환 학생이 된다면 각 나라의 문화를 몸으로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언어 실력 역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을 열심히 조사하였고 지인들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구했으나 양 국을 모두 다녀온 경우가 없었고 기회도 극히 드물어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아시아대학 간 학생 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데 취지를 둔 CAMPUS Asia의 장학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가 원하는 바와 일치하여 무척 기뻐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찬 수업 듣기

저는 본과 수업에 충실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HSK 6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수업 듣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고, 저 스스로도 현지 학생들과 경쟁해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학업에 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현지 대학은 시간표를 선택적으로 짤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과는 달리 모든 학년의 학기 시간표가 미리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하고 싶어 했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없었고 다른 학년의 과목 역시 수강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였습니다. (사실 본과 수업은 모든 학년의 수업 수강이 가능하였는데 사전에 이러한 정보가 없어 수강신청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은 본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본과 수업 대신 대외한어과 수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수업은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의 교류가 가능해 큰 도움이 되었지만, 다행히 본과수업도 청강이 자유로워 여타 시간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청강함으로써 나름의 알찬 시간표로 학기를 보냈습니다.

두드려라! 중국문화가 열릴 것이다!

수업 중 중국 문화를 현지 교수님에게 배울 수 있어 좋았지만, 중국인의 상세하고 일상적인 문화를 밀접

하게 체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중국식 과외인 '푸다오'를 하였다가 과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만두었고, 현지인과 부대끼며 일상생활 속 문화를 배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고민해 생각해 낸 방법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기'였습니다. 이는 무작정 부딪혀 보는 방법으로 용기도 필요했지만 타인과 외국인들에게 친절했던 동북지방 사람들의 성격 덕분에 성공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 할 때에도, 장춘의 전철인 '칭궈이'를 탈 때에도,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에도, 어디를 가던 옆의 현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칭궈이'를 타고 차 박람회관을 향하던 중 옆 좌석의 아저씨께 차 박람회관의 위치를 여쭙었는데 제가 한국 유학생임을 알게 된 아저씨는 박람회관의 위치와 함께 중국의 차 문화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차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중국 차 문화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이동시간을 즐겁고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던 택시 기사님과 동북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차 안에서는 다양한 지방에서 온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번은 중국 전통악기인 비파를 들고 가는 여학생을 만나 비파도 직접 연주해보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 것뿐으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과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한숨만 쉬고 있기 보다는 직접 나와 부딪히는 것! 유학생들 중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발적,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학을 온다면 할 수 있는 경험이 한정되어 있다?

NO!

사실 저는 유학 중 할 수 있는 것은 어학수업 수강, 여행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통해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둔 중국 초등학교 교육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외국인과의 교류 기회가 아주 없는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는 자신의 한국어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몇 번이나 반복해 물어보던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냐는 제 물음에 “음..... 어찌면요.”라고 대답하던 아이. 제가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저희와의 짧은 만남이 우리나라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었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아이의 꿈과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학생이 되어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온 아이를 우연히 다시 만난다는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저는 장춘에 소재한 길림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길림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 중,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려면 ‘우의 책방’이라는 단체를 찾아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유학생들 중,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림대학교에는 1년에 두 번씩, 유학생들이 모여 하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 진행을 위해 총 6명의 각 국가를 대표하는 진행자를 뽑는데 제 중국어 실력을 눈 여겨 보아 주신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영광스럽게도 2013년도 겨울학기 발표회의 한국대표 MC로 선발되었습니다. 길림대학교에서 한정된 한국 대표의 자리였지만 한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되어 얼마

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길림대학교 한국 유학생 대표로서 나온 것처럼, 앞으로 제가 어떠한 길을 걷던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통하는 사람이 되자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흔하디 흔한 카페, 식당에서도 느끼는 것이 있다

막 장춘에 도착했을 무렵, 기숙사 근처에 카페베네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페베네와 외관은 똑같았지만 카페 이용 문화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메뉴에 피자, 돈까스, 닭강정과 같은 식사 메뉴가 있어 무척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료를 다 마신 후 컵을 스스로 치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테이블을 치우는 일까지 점원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직원들의 손길이 더욱 바쁩니다. 이렇게 메뉴부터 서비스까지 현지화를 끝마친 뒤에서야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식당에는 우리나라처럼 금연 표지판, 외부음식 반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손님들의 행동을 주인이 제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중국인 친구에게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 주인은 왜 손님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것인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국인들의 문화가 그렇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규제를 어겨도 숫적 측면 등에서 감시가 어렵고 대다수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한다면 안내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 중국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안내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손님들의 행동을 제지한다면 오히려 왜 시비를 거냐며 타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현지화는 해당 국가 사람들의 문화와 성향을 반영

한 것’이라는 사실이 무척 크게 와 닿았습니다. ‘현지화’는 책에서도 배울 수 있는 단어이지만 직접 해외에 나가서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현지화를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에 동북아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제게 문화차이 인식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깊이 느끼게 한 경험이었습니.

피해 갈 수 없는 동아시아 역사 인식 문제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역사 문제는 지나칠 수 없는 화제일 것입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중심지인 장춘에 머물며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 인식 문제를 다시금 고찰 할 수 있었습니다.

장춘의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 유학생 중 동양인들을 보면 백이면 백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일본인이라고 대답하면 승차거부를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동북지방 사람들의 반일 감정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한 일본인 친구는 막 장춘에 와서 승차 거부를 당해 당황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며 일본에서는 자국의 식민지배 같은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지나가듯 가볍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 전까지 동북지방 사람들의 반일 감정이 이렇게 심각하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일본 식민지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와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독립 문제 이야기를 하다 중국 정부와 신장위구르 자치구 사이의 갈등문제 해결책에 대해 중국인 친구에게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의식을 세뇌시켜야하지 않을까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친구 앞에서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체가만히 친구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북공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중국이 한국 역사의 일부인 고구려라는 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편입 시키려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중국인 친구는 그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친구에게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와 가혹 행위를, 중국인 친구에게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자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 공감을 하며 자국 정책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와 두 친구 모두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심층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깊게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 했지만, ‘모든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CAMPUS Asia와 같이 동아시아 3국의 학생들이 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상호교류를 통해 지식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들의 상호교류 기회가 많아져 상대 국가의 관점에서 역사 문제를 바라볼 기회가 늘어난다면 가까운 미래에 역사 인식 문제를 한결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CAMPUS Asia의 든든한 후원 하에 저는 이번 중국 유학에서 중국어 실력 향상에 그치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길림대학교 차원에서 마련한 CAMPUS Asia 학생들과 함께할 자리가 적은 것은 아쉬웠지만 한, 중, 일 학생들의 교류를 목표로 본다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다음 학기 일본 오카야마 대학으로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한 만큼 일본에서 역시 상호 문화 비교,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며 더욱 알찬 유학생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저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중국, 일본을 동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CAMPUS Asia 기획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My Dramatic Life in Tokyo



최혜민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서울대 - 북경대 - 동경대)



1. Who am I? -

A CAMPUS Asian Nomad

Hi! My name is HaeMin, CHOI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GSIS, SNU).

Although I received high school and universit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 was interested in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language and politics (of course Korean as well) more than American politics. Therefore the study I wanted to do was international politics related to Northeast Asia. However, the undergraduate university I was in did not teach enough about Asia; just briefly mention the concept of the rise of China. With the reason above, I decided to study more on Asia in my home country, Korea, which I believe the center and the mediator in Northeast Asia.

In March 2012, it was the time when I only had one semester left before the graduation. Even though I was satisfied with the study and classes I had take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 felt slightly empty on one side of my heart. However, I read from "Notice" section on my school website; promoting Campus Asia Program. Without thinking more than one second, I went to see the person in charge in order to ask thoroughly about the program. This was it! Studying in both China and Japan is "the dream" I always wanted as I was interested in both countries! Luckily I had a reasonable GPA, obtain JLPT Japanese Proficiency Test score, and HSK Chinese Proficiency Test score; nothing was needed more, but just apply for it.

You may ask whether I hesitated to apply since I had only one semester left before the graduation. The answer is "NO". I never hesitated to apply the program because this was "the dream" for me to study in China and Japan. Thankfully, both my parents supported me on the idea of

being abroad again. A few weeks after I applied, I heard the best news of the year, being accepted to Campus Asia program.

Then, on March 28th, 2013, I flew to Tokyo with four other CAMPUS Asians from my home university. Japan was where I only been once before for research program, and where I wanted to study about Japanese people, society, politics and old history. You would never imagine how much I was excited to arrive in a country I want to look at closely. It was like “Dream ★ Comes True” □ one of the famous logo in the game during 2002 Korea-Japan Soccer World Cup. Yes. Finally I was in Tokyo! I gave my word that I would experience and enjoy everything I can.

2. How was the life in the University of Tokyo (Todai)? - Delightful days

From the first day of arrival, the school arranged “tutors” for us, five. Todai has a system of tutor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help foreigners to settle in the city as well as at school. We did not expect them to be at the airport greeting us at the arrival gate. Most of us spoke enough Japanese to get to the place we were assigned. Surprise! There were three Todai students waiting for us. We felt it was some kind of welcome gift from the school. Those three students were really nice, kind and even helped us to carry the baggage. On the next day, they took us to the Ward office to fill out foreign residence form and help us to apply for



insurance. Everything went smoothly thanks to them. The picture on the right was taken on the second day at a Korean restaurant, after visiting the Ward office.

- In Classes

Although my Japanese is not good enough to take courses, I just challenged myself to take some courses in Japanese. So, for the first semester, I took four classes in Japanese and two in English. As Korea and Japan has a few conflicts on territory, textbook, and comfort women issues, I really want to know how the Japanese professors teach their students in these issues. To be honest, I expected something “far-right-wing” comments, because I believe the education brought the conflicts. However, such expectation never became real. Of course there were professors who explained only on Japanese positions (this was understandable because they were Japanese, but it was never far-right-wing comments), but most of professors tried to teach both countries positions on those

issues and rather being neutral. Actually there were a few professors yelling at Japanese students: “Japan is very irresponsible country, so YOU should do something because you all are future leaders”. I was very shocked to hear such frank talks. It is not like I was happy to hear such, but rather did not know how to react. This was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You may question that those professors said such because there was me, a Korean, a foreigner in the class. To answer you, I never told professors I was Korean until my presentation day or midterm. Professors were surprised that there was a Korean “censoring” them. Since then, I had a feeling that I could talk about man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Japanese friends in Todai who are being educated from these professors.

- With Friends

The school I was i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GrasPP) of Todai, has both English and Japanese programs. Most of Japanese students were in Japanese program but there were also numbers of Japanese students in English program. Mostly I was closed to CAMPUS Asian Japanese students who are getting ready to visit my home university. However, I also was able to make other Japanese friends with different background because I took a few classes in Japanese. We formed a discussion tea-time or dinner every Friday. The weekly discussions were held in Japanese but we could mix up with English

if we do not know a proper word to use. We talked about many issues, not only just sensitive issues but also culture about each country like job hunting, family traditions, school life, general social life, language and even love affair. We all were very open-minded, listening to each other. We never criticized each other but rather being modest criticizing own country. I think this was how we became closer and how we were able to bring up sensitive issues on table. The picture on the left was taken during our discussion about Korea and Japan (Three boys are Japanese and three girls are Korean-CAMPUS Asi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should be two Japanese girls in this group but both could not come for this day. Then, we took this picture because we seem like



having a “triplet date (미팅 in Korean or 합콘 in Japanese).”

- Experience being interviewed by the school

One day, Kkogsongi, Jinsun and I (all from GSIS, SNU) received an email from Todai News

Letter office saying that they want to interview CAMPUS Asians. The reasons for them to interview us was first, they were amazed by us speaking Japanese (other than Kkogsongi who lived in Japan for 7 years, Jinsun and I studied by ourselves), second, they wanted to know what CAMPUS Asia was, third, they want to promote “international mind” to Todai students. We, three, answered OK, but we were nervous because we wanted to carry out our mission of making a good image of CAMPUS Asia.



(The Picture of published News Letter)

Professor Tanaka Nobuo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on the top left says about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sia” promoting Japanese students to be more internationalized giving CAMPUS Asians as examples. The whole right side is the interview of us.

After this was published, we received many facebook messages from Japanese friends as well as future CAMPUS Asians. They all said that they enjoyed reading the articles about our lives in Japan and the reasons of being in Japan. We were so glad to get such messages because it was the evidence of our “mission-complete.”

- Special Lectures and Conferences

There were many chances for me to attend

special lectures and conferences hosted by Todai. Among these there are two events I would like to list here. One was a special lecture by Aung San Suu Kyi. Her lecture title was “Democracy and the Expectations on Young Leaders of the World.” She said many important things, but among those, I liked her advising us that to be a good leader, we must first be a good follower, having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 and expanding knowledge. Most of Korean and Japanese CAMPUS Asian in Todai attended this lecture and had lunch together after it. There, we acknowledged ourselves that we are “the” future leaders and we should obtain knowledge about each other without hesitation and discrimination.

The second event to introduce is GPPN conference (Global Public Policy Network). Every year, seven public policy schools (Todai GrasPP of Japan, Columbia SIPA of USA, FGV-EAESP of Brazil, Hertie School of Germany, Lee Kuan Yew School of Singapore, London School of Economics of England, and Sciences Po of France) open a conference for students to share ideas about certain topics. This year, Todai hosted the meeting that I joined it as a student-staff member. The topic for this year was the responsibilities of



leade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on disasters having Fukushima as an example. Each one of participants emphasized to be a “responsible leader” as well as “kind friend” when the neighbor is under a calamity. (The one who is v-ing on the second line, second from the left is me.)

3. What have I experienced in Japan? - Five-year experiences within one year

Except academic life,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other activities I have done off campus.

- Teaching Korean and English

I was asked by my Japanese friend to teach English to her cousin's three-year-old son. I took a few courses in child development in undergrad because I loved children. I frankly asked the child's mom the reason why she wanted me. She said she heard about Korean's English education and she wanted to hear stories from me. I am the one thinking early English education is not good for young kids, it was very difficult to answer many of her questions. But I enjoyed teaching the boy because he listened to me well and the mother treated me with good Japanese dinner every time I went there.

Another teaching experience is teaching a Japanese K-pop fan. She asked me to teach Korean and I was joyful to teach her. She has been to Korea four times to visit some drama locations,

cafe running by celebrities, and concerts. I did not have any sense of K-pop power in Japan, but through her, I learn K-pop and drama really changed the image of Korea.

- Travelling



1. Crying me after picking two straight “misfortunes” at Kamakura Temple.
2. At one of the oldest castles in Japan (Matsumoto) with a Samurai
3. At Nagano, A traditional Japanese hotel dinner with Todai GrasPPers.

When I was free, I tried to go out for discovering Japan. I have visited to Kyoto, Osaka, and Hokkaido by plane and Yokohama, Nikko, Hakone, Kamakura, Kawagoe by subway or train. Also I visited Nagano prefecture organized by Todai GrasPP. As Japan is bigger than Korea having “long” territory, every place had different style and every part had own culture. Among the cities I have visited, I liked Osaka and Kamakura.



1. SNU, PKU and Todai CAMPUS Asians At the entrance ceremony of Todai, 2013

2. We have CAMPUS Asian dinner monthly. This picture was taken at the October dinner at a Korean restaurant to celebrate the sign of Gam-Ja-Tang Agreement. It is an agreement between us not to menace but love each other when we become the leaders of our countries in the future.

I liked Osaka because I felt I was back in Korea. People were nicer(?) and food was better than Tokyo, and Kansai dialect sounds familiar to hear. It sounded like Busan dialect in Korea. I also liked Kamakura because I like the city with old fashion. Plus, small island called Enoshima near Kamakura was like a paradise for me. Enoshima is the location for the famous cartoon "Slam Dunk." I walked the beautiful ocean-viewed path where the protagonist of the cartoon ran every morning.

- Unforgettable memories with other CAMPUS Asians

No words needed. We, SNU, Peking University

(PKU), and Todai CAMPUS Asia students are just awesome. Everyday, we think radically, we share rationally and we drink frantically.

4. My advises to future CAMPUS Asians

It is very difficult to write down all the events happened to me, but I truly experienced many things which normally are uneasy to experience. Of course it was not always positive but those were the things I could handle. I would suggest you not to be afraid of facing difficulties. From difficulties, you will be more mature and get familiar with the surroundings. Also, be active. Actively go around, actively, participate, actively talk, and actively drink with your foreign friends. These are the way to make memories of your daily life as an exchange student. Other than these, there are three things I would like to advice to the future CAMPUS Asian: Learn Japanese language, Hang out with Japanese friends, and do not save money when socializing. There was a CAMPUS Asian girl who did not try to learn Japanese (actually gave up because she was busy with economic classes), had no close Japanese friends, and did not join dinner where we share thoughts. Yes, she was a good students taking many classes, getting good grades, have other foreign friends who she can communicate in English. Excuse me? You can do those anywhere! I thought she was really STUPID and felt she would never learn from CAMPUS Asia program.

Please repeatedly think the purpose you are

in Japan. Please do not spend your time as above girl. You chose to do CAMPUS Asia to see Japan and learn Japan. If you want to learn about Japan, the best way is first, to learn the language. I am not saying you have to speak fluent Japanese. But at least try to learn a sentence per day and speak out. There were many foreigners envying Korean natives having very similar grammar structure as Japanese. Make them envy! You can learn Japanese fast if you decided to learn. Also, hang out with Japanese friends. They are not shy as you think. You may say Japanese people are difficult to be close with. It may be true. But

have you tried? Without having a close Japanese friend, how can you understand Japanese people, society, culture and even politics? They are not that close-minded. Lastly, please do not save money in Japan. The scholarship 80,000yen is not much but you can actually save some if you avoid drinking parties, tea-times with friends, and travelling. You are not in Japan as a labor, you are here to study. And to study, it COSTS money. 80,000yen is there not to save, but to experience. Just ENJOY everything you do!!



(Picture with KCUE officers in Tokyo) I am the sitting on the chair with a bag

Campus Asia를 통해 노동·교육정책 전문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다



이보배 대한민국 KDI 국제 정책대학원 개발학과
(사업단 : KDI)



캠퍼스 아시아로 얻은 최고의 보물, 한-중-일 노동/교육 전문가 되기로 결심!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해외특파원이 되다.

"중국을 온몸으로 느끼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캠퍼스 아시아를 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문장' 이자 각오였다. 캠퍼스 아시아 공고가 났을 때, 한-중-일의 최고대학에서 정책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회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티켓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었다. 대학생 때 "교환학생" 을 통해서 '제2외국어를 배우고 해외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었다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꿈을 찾고, 배양하며, 개발현장에서 몰입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겨진다. 개발 현장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딱 하나다. 중국은 현재 초고속 개발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다. 첫째, 수많은 투자자들과 해외공무원들이 중국 경험과 전략을 배우기 위해 온다. 둘째, 중국 현지인들이 "개발"에서 느끼는 체감(특히, 소득불평등)을 소통할 수 있다. 셋째,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 기여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다. 중국,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이 세가지 핵심은 내가 꿈을 찾아 하루하루를 "감

동"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어 못해도 "중국" 알 수 있을까요?

난 자신 있게 "NO" 라고 대답하겠다. 특히, 중국은 중국어를 하지 않으면 중국의 진면모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다는 거 모릅니까?"

베이징에 위치한 커다란 과일 시장에서, 꺾을 파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질문을 듣고 어이없거나 화를 내며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보면, 중국이란 나라를 다시 보게 된다.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 세대들이 아직도 계시며, 농촌 도시간의 소득 불평등으로 교육의 차이도 어마어마하다. 의무교육 9년 계획(초/중 교육 합해서 9년)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기본 의무 교육으로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 끼 식사 4000원에 육박하는 베이징, 최저임금¹⁾은 2500원이 되지 않는다. 지역을 뛰어넘어가 보자, 중국 서쪽 남단의 사막지역(둔황), 하루 11시간 이상의 노동이지만, 3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낙타몰이 아주머니, 연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 초고속 개발 현장에서, 경제적 혜택이 모두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피부로 알기 위해서는 중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낙타몰이 아주머니와 어떻게 영어로 대화할 것이며, 외국어로 대화하기 보다는 현지 언어로 소통해야 현지인들도 더 쉽게 마음을 열기 때문이다.

저랑 언어 교환(Language Exchange) 하실래요?

1) 베이징의 최저임금: 15.2yuan
(http://blog.naver.com/moleab_suda/30166605431, 이보배 특파원)

일주일에 한번 "2시간으로 중국어를 정복 하겠다." 는 비실비실한 몸으로 동아시아의 맹수, 호랑이를 때려 잡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랴! 2013년 2월에 중국에 입성해, 중국어의 갈증을 느낀 나는, 언어교환 의 벽보를 프린트해서 도서관에 갔다. 때마침, 역사학과인 중국인 친구가 이미 붙여놓은 벽보를 보고 연락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 한 시간은 중국어, 한 시간은 Economist, New York Times, China Daily 등 영어토론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언어 교환을 시작했다. 언어교환은 내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중국인 친구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 어떠한 주제도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중국인 친구와 4개월 동안, (시진핑의 슬로건) Chinese Dream, 최저임금제, 문화대혁명, 중산층의 애환등 다양한 주제로 중국을 알아갈 수 있었다. 이 역사학과 친구가 8월 미국으로 박사



칭화대 역사학과 친구



칭화대 고등교육학과, 미술학과 친구

과정을 가서, 2학기에는 내가 직접 벽보를 붙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시행한 언어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부



해나갔다. 그렇게 1년간 공부하니, 이제 중국 어디에 떨어뜨려 봐도 살아남아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다.

**캠퍼스 아시아, 꿈을 지원해드립니다.
두근두근, 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이 되다.**

해외에 있으면서 아쉬웠던 것이 국내에서만큼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캠퍼스 아시아 학생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다. 3년전, 대학시절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후! 발견한 "해외특파원", 꼭 해보고 싶었던 분야였는데, 2월 말 때 마침 내 눈에 들어온 공고는 나를 한번에 사로잡았다.

고용/노동 분야에 관해 자신만의 콘텐츠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²⁾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이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찬란"하게 만들어줄 달란트! 인 것이다. 해외특파원 모집은 년 말 또는 년 초에 뽑으니 개별적으로 잘 체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외에 외교통상부도 모집하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뼘 한뼘 구슬을 꿰듯, 지원서를 작성했다. 중국 최고 대학 칭화대 학생들의 졸업 이후 현황에 대해 작성했고,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후 기사를 작성한다고 기획서를 적어 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2013년 3월 7일 저녁 10시 합격자 명단에

내가 올라왔다. 도서관에서 돌아와 쉬고 있는 그 시각! 너무 기뻐했던 순간이 아직도 떠오른다. 덕분에 2013년 11개월 동안 난 중국 고용 노동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했다. 인터뷰(낙타몰이 아주머니 와 굴 가게 아주머니 수입 등), 논문조사, 직접 현장 가보기, 책으로 조사, 교수님 수업+인터뷰, 영화보기등 말이다. 7개월쯤 되었을 때, 난 결심했다. 노동/교육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기로!

100시간 기차 + 버스여행, 40일간 중국을 만나다.

그 나라를 직접 보려면, 여행을 가야한다. 현지의 색채를 보기 원한다면 방학을 맞은 그대, 배낭을 짊어지고 떠나라!



쓰촨성, 캉딩 (티벳족 거주지)에서 중국인 친구들과



시창반나, 징홍 소수민족 다이족

중국에서 첫학기가 끝나고, 중국 40일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의 길목에서 만날 인연에 두근거리며, 20L 배낭안에 10kg 여행소품을 짊어지고 베이징- 간수(관저우) - 둔황 - 청두- 어메이산- 리산- 캉딩- 야딩- 양



간수, 쓰촨, 윈난, 시창반나 : 기차 / 버스 100 시간 이상



천국의 풍경을 가진 야딩 (고도 4000 미터)

그릴라-리장-다리- 시창반나(징홍)- 라오스 까지, 40일 여행 길 에 올랐다.

란저우와 라오스를 제외하곤 모두 혼자 디자인한 여행이었다. 그 이유는 중국어를 더 많이 쓰며 배우고 싶었고, 중국을 사랑해보고 싶었다. 학교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중국어를 쓰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여행! 나를 중국 한가운데 떨어 뜨려놓을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물론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강한 인상과 내가 중국에 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미각으로, 향기로, 촉각으로, 음성으로 다가온 최고의 여행이자 공부가 된 시간이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교훈은, '직접 소통하기 전까지는 중국인의 어떠한 애환과 환희를 느낄 수 없다.'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중국은 나에게 더 절실히, 그리고 꿈의 무대로서 간절히 다가왔다.

캠퍼스 아시아 1년 평가 및 개선사항

"최고의 프로그램(시간, 장소 모두 최적) 지원자의 역량에 따라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될 수도, 아시아 브릿지가 될 인재를 배양 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년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여섯시에 일어나 칭화대 학생들과 공원에서 영어 기사를 소리내서 읽고, 과제가 주어지거나 고용노동부 기사주제가 내려왔을 때, 중국인 친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했다. 문화대혁명을 알기위해 상해에 위치한 Propaganda 박물관에 가서, 관리하는 아저씨와 그때의 상황에 대해 생생히 듣기도 하고, 인청 시장님께서 칭화대에 오셨을 때 상해 자유무역지구를 예로 들며 질문을 드리기도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중국/일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게 돈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며 중국의 땅에서 밭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며 중국을 이해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능동적인 자신의 노력이 없다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방황의 시간으로 자칫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신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을 관리가 되지 않는다. 셋째, KDI- TSINGHUA- GRIPS 의 경우 언어 지원 (어학과정) 이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학기 있어도 능동적으로 배우지 않는 경우 중국어 실력을 올리긴 힘든 실정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첫째, '학생들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중국에 왔을 때, 학생들이 두/세명인 경우 인원이 작아서 캠퍼스 아시아참가자들이 전공대학본부의 대외협력부(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하지 않으면 이메일 리스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초반에 잘 등록되지 않으면 학교 행사에 땀방 빠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중국어 어학 지원문

2)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eab_suda/

제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년 이라면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반 학기 있는 학생들이 수업(전공 수업은 영어로 운영됨)을 따라가는데 집중하다보면 중국어를 자신이 따로 배우지 않는 한 소통을 넘어, 중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으로 캠퍼스 아시아를 가시는 후배님들께

뚜렷한 목표를 정하시고, 4개월 또는 1년동안 자신을 중국의 삶속에서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중국인들과 최대한 많이 소통하세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핵심은 캠퍼스 아시아를 어떻게 요리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영양가가 풍부하게 나의 것으로 흡수 하느냐는 본인의 역량에 달렸다. 단,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경제적인 것을 함께 지원(기숙사 무료, 등록금 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거나 공부하고자 한다면 사실 어떻게 해서든 배울 수 있다. 주변이 선생님이고,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개발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칭화대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학생들의 성실함과 중국의 정치 경제를 꿰뚫어보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많기에, 공부하기 참 좋은 장소인것 같다.

학교가 어디든,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최대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중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랑해보려고 조금만 나의 마음을 기울여 보자.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캠퍼스 아시아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것이라 확신한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칭화대에서 홍보한 자료입니다(13.10.31)

동북아시아 협동국의 가능성을 찾아서



이유경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북단대 - 고베대)

내게 너무 먼 중국

학부에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한 저는 대학시절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한국인이 많이 가지 않은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섬 횡단 여행을 하는 등 인도네시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공부한 저는 졸업 할 즈음, 다른 학문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한 지역에만 국한 된 공부가 아닌 세계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남아시아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꿈을 안고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1년 마친 겨울 저는 말레이시아의 비영리 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SIS) 경제 분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전의 관심사대로 인턴기관은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중에 탐색했습니다. ISIS는 아시아 세계 30대 싱크탱크(think tank) 중 하나인 연구소로 그곳에서 가진 인턴 경험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당

시는 한중일 국가원수들이 모두 교체되는 시점으로 저는 아세안(ASEAN)국가들과 아세안+3국간의 향후 관계에 대해 전망하는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문헌연구 및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과의 만남으로 저는 중국은 아시아 연구자에게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 대상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안+3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중일의 역할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2의 세계 대국, 중국의 역할은 3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에 대해 관심 갖게 되었고 중국 역사 및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시각이 변화하자 학부 시절 중국에 대한 막연한 무관심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현존하는 영향력에 대해 무심하게 지나쳤던 제 자신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 없이 미디어와 한국인이 가지는 통념에 바탕 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 등 지역을 공부한 제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고려대학교의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 조교를 하면서 본 교류 사업이 제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

습니다.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중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대부분의 아시아 학생들이 서구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서방국가로만 가는 유학과 그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복단대학교 국제관계□공공사무학원(Th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SIRPA) 과정은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제 욕구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자는 한국에서의 전공과는 다른 엉뚱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였지만, SIRPA의 교과과정을 꼼꼼히 확인한 저는 그러한 걱정이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접해보지 않은 행정(공공관리)학문은 국제개발협력의 한 방향으로써 공공/민관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공부하고 있던 제게 알맞은 공부였습니다. 덧붙여 저의 논문 관심 주제인 수자원 개발은 리스크(Risk)를 안고 있는 공공재로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이라는 컨소시엄 주제에 부합했습니다. 위기관리의 범주는 일본의 자연재해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행정위기관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더 넓은 식견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공부를 위해 중국 행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만나다

저의 중국 유학이 결정된 이후 저의 가족은 여름휴가 여행으로 상해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애 최초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전 답사를 한 상해 여행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년 방문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던 지인의 말처럼 상해는 과연 중국 내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인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장면들

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1개 선의 지하철을 포함한 상해의 대중교통은 한국 이상으로 훌륭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중국의 e-거버넌스' 수업에서 상해에 버스 및 지하철 알림 서비스 시스템도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통규범 준수 및 공공장소 질서유지 등의 시민의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해의 동방명주(东方明珠)타워에서 바라본 황푸강(黄浦江)의 무역선박과 컨테이너 박스들을 보면서 중국의 미래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사전 여행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점은 바로 언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중국어 공부에 더 시간을 들여 가능한 만큼이라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장점은 현지연수 전부터 어학학습을 독려,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제가



복단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가는 사전준비를 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학공부 이외에도 캠퍼스아시아 1기 선배들과 이메일로 교류하면서 현지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의 준비를 했습니다. 복단대학교의 학기 개강을 앞두고 저는 고려대학교로 파견 왔다 돌아가는 중국 학생들과 함께 상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전에 프로그램 조교로서 국제 프로그램 친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둔 덕분이었습니다.

상해 복단대학교(Fudan University)는 상해의 북동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상해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는데, 인천 국제공항과 연계되어 있는 푸둥 국제공항에서는 복단대학교 근처까지 오는 리무진버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학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국내선을 취항하는 김포-홍차오 공항 라인으로 입국할 때는 지하철 10호선을 타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다운타운의 거리는 가깝지 않았지만, 학교 주변에는 월마트, 테스코 등의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쉽게 구비할 수 있습니다. 또,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매달 생활비와 첫 달에는 정착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생활의 편의와 활동반경을 넓히기 위해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특히, 기숙사는 북쪽 캠퍼스에 위치한 반면 SIRPA 수업을 듣는 강의동은 남쪽 캠퍼스에 위치하여 자전거가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중고물품부터 최신상품까지 기숙사 근처 여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외국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문 복단대학교의 외국인기숙사는 건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로 현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보다 매우 깔끔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고 거주학생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기숙사 내에 복단대학교 한국학생회 사무실과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거나 한국서적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는 1인 1실이 되 4인이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의 거주지입니다. 저의 룸메이트는 미국계 이스라엘인, 스웨덴인 그리고 한국인 친구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얻은 수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룸메이트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친구 세론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인 1실로 개인 공간이 보장되면서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숙사 시스템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공간을 공유하면서 가족 이외의 타인과 함께 사는 법, 배려하는 마음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복단대학교에서 중국 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세론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운동과 건강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함께 수영을 하고, 주변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사와 요리를 해먹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고, 함께 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생각들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사를 나누고 진솔하게 토의할 수 있는 친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연수기간 중 만난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단대학교에는 세론과 같은 서방 국가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SIRPA 과정에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Po)과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등에서 파견 온 유럽 학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온 학생들로 인해 강의실은 말 그대로 초 다국적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한 공간에서 공부한다는 점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식 공부에 익숙한 한국학생들에게 토의식 수업이 주는 이루는 환경은 흥미롭고도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펼쳐진 자유로운 토론과 논리를 파고드는 쟁점들로 종종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업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근대 중국 정치발전사’와 ‘중국의 e-거버넌스’를 포함하여 ‘공공관리학 이론’과 ‘공공경제학’ 그리고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근대 중국 정치발전사’ 시간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대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 중반 중국은 왜 공산주의를 택하게 되었으며 50~60년대 산업화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70년대 들어서 실패한 근대화화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지난 35년간의 시장 지향적 개혁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오늘날의 국가와 사회의 권력관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전부터 품고 있던 중국 공산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천안문 사태와 같은 역사적으로 주요한 사건들과 정치적 변화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e-거버넌스’ 수업에서는 디지털 시대 정부의 정책입안, 국정운영, 공공서비스 전달 및 공공참여 그리고 행정혁신에 있어 정부가 새롭게 직면한 문제

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달라진 정부의 역할을 배우면서 한국이 전자정부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종이기반(Paper-based) 시스템에서 전자정부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정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관리학 이론’과 ‘공공경제학’을 수강하면서 행정학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수업 모두 이론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관리학 이론’ 수업 교수님의 중점 연구분야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민영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전까지 저의 연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이론들과 방법들은 공공경제학 수업이 도움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주제를 담고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위기관리의 역사와 제도부터 구체적인 자원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는 중국 내에서 유일한 정부 주최의 ‘상해 국제 방재안전박람회’(The 5th Shanghai International Disaster Reduction and Security Exhibition)에 방문하여 위기관리 보안장비 및 기술, 응급통신 장비, 수색 구조 기술 등을 관람했습니다. 덧붙여



위기관리 수업 현장학습

외국인 학생들만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가 공부한 SIRPA 대학원에서는 캠퍼스아시아 학생들과 다 함께 학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독려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는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휴일에 재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파티도 열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함께 남경(南京)과 같은 중국의 옛 수도나 중국의 대표 문화가 루쉰의 고향인 소흥(紹興)과 같은 관광지를 여행했습니다.

동북아시아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서



소흥(紹興) 여행지에서 친구와 함께

저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학생으로서 북경에서 개최하는 ‘유엔 워크숍’(UN Workshop on Strengthening Urban Search and Rescue Capacity)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1주일 간의 합숙으로 진행된 연수회는 중국을 포함하여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위기관리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3국의 정부와 비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위기관리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제를 통해 실질적인 사례연구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위치 별 다른 차원의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단기간의 워크숍이었지만 한 학기 수업 그 이상의 풍부한 지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것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으로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지내면서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단대학교에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에서는 유학생들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상해 야경 유람선 투어를 제공하고 버스를 대절해 상해 근교를 여행하는 등

저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이 교육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북아시아 3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아시아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중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한 중국인 튜터(tutor)제도를 건의합니다. 현지연수 학생들을 위해 어학수업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겪

는 고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는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 조교들이 있으나 이들은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들의 원활한 정착에 신경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 복단 대학교의 경우 중국인학생과 외국인학생의 수업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을 사귀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일 현지 학생들과 1:1 매칭이 된다면 교환국에 파견되는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은 위기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위기관리에 대한 범주가 광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자연 및 인위적 재난 관리에 집중한 일본보다는 사회적 재난 등 다른 범주의 위기도 다룰 수 있는 중국의 공공사무학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행정과 외교 및 국방 혹은 금융 등 폭넓은 상황의 위기관리 수업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국가위기관리 분야가 발달된 형태입니다. 위기관리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각 학교별 특화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덧붙여, 중국 유학생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과정의 특성상 다양한 루트의 많은 자료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정보검열로 인해 다수의 홈페이지에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많은 학생들이 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학교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학생들의 편의가 도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동문회(alumni) 조직 및 활성화를 건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대학교류 프로그램보다도 장점과 혜택이 많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동문회를 이루어 교류한다면 향후 구성원들 간의 동반 상승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견시기와 국가가 맞물리지 않다 보니 한 국가 내 학생들 간의 교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후 파견자들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파견되었던 중국 학생들과의 친분으로 현지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일부 학생들은 이전 참가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각 국가별 파견 선, 후배 간의 공식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교류한다면 이후 3국의 캠퍼스아시아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나를 그리며

본 후기를 마치며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고려대학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상해 남경로(南京路)에서

드립니다. 덧붙여 파견 학생들의 적응과 학습을 위해 도와주신 복단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한 친구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한 지금 수기를 작성하다 보니 설렘과 걱정으로 시작한 유학초기의 마음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지금 저는 중국에 가기 전과 조금 달라진 제 자신을 느낍니다. 학업에 임하는 자세가 더 진지해졌으며 한국에 체류할 때 보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또, 학부시절 현지연수 때와는 또 다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더 깊은 대화와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

금 다가올 다음 학기와 또 다른 중국 그리고 변화할 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경험은 중국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드넓은 만큼 깊기도 깊었던 5개월의 중국, 그리고 그 속의 나



김기현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 칭화대 - 동경공업대)

지원 동기 및 준비 절차

연구 기관 간의 교류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한국의 우리 연구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계적으로 엔진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교류에 대한 욕심이 커져가던 차였다. 카이스트 학부-대학원 생활을 오래하면서, 약간은 나른하고 정체된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방법을 모색하던 중 Campus Asia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최고 연구 대학기관과의 연결을 제공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연구실을 선정할 수 있고, 기숙사 제공 및 적절한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지금까지 Campus Asia 프로그램은 학부생 위주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석박사 대학원생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공지를 듣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학부생들과는 달리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고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지도 교수님께 지원 의지를 말씀 드린 후, 허락을 구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내가 현재 박사 고년차(4년)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그 이유는 해외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활동은 학업에 대한 나의 시각을 넓혀줄 좋은 기회이며, 학업 이외에도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경험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회는 절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Campus Asia를 통해 갈 수 있는 중국의 칭화대와 일본의 동경공대 둘 다 매우 훌륭한 공과대학이자 좋은 선택이었지만, 최근 내 연구 분야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많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신 연구시설을 많이 확보한 중국 칭화대학교 연구실을 선택하였다. 희망 연구실을 선택한 후에는,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지원 신청서를 냈다. 동시에, 지도 교수님을 통해 지원코자 하는 연구실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방문 연구에 대한 의사를 말씀 드렸다. 칭화대 연구실 교수님께 서도 흔쾌히 방문 연구를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 연구실과의 네트워크를 쌓고 앞으로의 연구 교류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기뻐하셨다.

Campus Asia 프로그램에 합격한 이후, 중국으로 떠나는 날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였고, 더불어 칭화대 연구실의 최근 연구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에서 수행하게 될 연구 주제를 구체화 하는 준

비 작업을 하였다.

중국, 첫인상 & 학문적 깊이를 더한 시간들

2013년 9월 10일, 드디어 중국 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북경 공항은 인천공항처럼 세련되거나 깔끔하진 못했으나 거대한 규모와 수많은 인파가 과연 중국 수도 공항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5개월 동안의 생활을 위해 가져간 많은 짐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서툰 중국어로 “칭 따오 칭화 따쎬~ (칭화대학교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택시 기사사의 돌아오는 유창한 영어 대답이 놀라웠다. 7년전에 잠깐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비하면

충격적이었다. 중국 북경이 얼마나 많은 문물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서구화 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칭화대학교는 카이스트에 비하여 학교 규모로나 학생 수로나 수 배에 달하는 중국 최고의 공과대학이다. 9월말이라,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어 학생들은 대부분 반팔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특유의 수수한 복장과 외모가 눈길을 끌었다. 멋내기를 좋아하고 겉모습이 세련된 한국 학생들과는 다르게, 수수한 복장을 차려 입고 등에 가방을 메고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이 약간 촌스럽기도 했으나 친숙하고 따뜻한 게 느껴졌다.

학교에 들어서서, 입학 등록을 하고 기숙사 신청 등 서류 처리 과정은 거의 어려움이 없었을 정도로 간단하고 수월했다. 수많은 유학생 및 교환학생이 오가는 대학인 만큼,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 등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었고 Campus Asia 측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어 모든 과정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Campus Asia에서는 기숙사를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는 교환학생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해외 교환학생이나 방문 연구를 하는 경우 숙소 검색 및 기숙사 신청이 쉽지 않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Campus Asia 쪽에서 준비해 준 기숙사는 1인실에 체류 가능 기간 또한 넉넉하게 잡혀 있어 교환학생 기간 내내 감사히 사용하였다.

1학기 동안 연구 활동을 하게 된 연구실은 칭화대학교 자동차 학과에서, Wang Jianxin 교수님이 책임자로 계신 자동차 안전 및 에너지 연구실이었다. 연구실은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관련 핵심 연구실로 학생이 40여명에 이르고 교수님만 세 분이 계신 규모가 매우 큰 연구실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어, 다소 낯가림이 있는 편인 나



칭화대학교 실험실



동료 연구자와 실험하는 모습



칭화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에게도 편안함이 느껴졌고, 중국 생활에 따뜻한 희망을 안게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의 내 연구 주제와 일치하는, 가솔린 압축착화 엔진 연소 기술 팀에서 연구를 함께하게 되었다. 본 연구 주제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자동차에는 잘 알려진 대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가 그것이다. 이 두 자동차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연료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엔진, 즉 동력기관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디젤 자동차에 가솔린 연료를 주유할 경우 엔진이 고장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디젤 엔진에 가솔린 연료를 사용했을 때, 엔진을 약간 개조하고 제어 방법을 그에 맞게 최적화 할 경우, 기존 디젤 엔진보다 더 우수한 연비와 배기 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실용화에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나는 본 연소 기술의 운전 가능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관련한 주제를 제안하였고, 수 회에 걸친 회의와 토론 끝에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 연구 주제로 최종 결정되었다.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로서 중국 지도 교수님과 중국 박사과정 학생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신선하고도 값진 경험이었다. 나의 서툰 중국어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 및 의견 교환은 영어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소에도 특별히 영어로 많이 대화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영어 공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이였다. 이는 평소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자극이 될 사항이었다.

또한 중국 학생들의 연구 자세나 연구 접근 방법,

회의 방법 등은 한국 연구실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른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연구 계획/연구 결과에 대하여 지도 교수님과 연구팀이 수시로 모여, 매우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폭 넓은 시각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선후배 및 지도교수님과의 상하 관계에 우선하기보다 연구자로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한국에서보다 더 효율적으로 느껴졌다.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 수행을 통하여 목표한 연구 주제에 대한 결과를 순조롭게 도출할 수 있었다. 1학기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구 주제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그리고 공동 연구자와의 효율적인 상호 협력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연구 막바지 기간 동안에는 결과 정리 및 연구 논문을 작성하여 국제 학술지에 제출하는 성과(현재 심사 중)도 거두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얻은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칭화대 측 지도 교수님과 연구팀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과제 도출과 연구 교류를 약속하였고, 이 점이 이번 교환 연구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싶다.

모험과 신선한 느낌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

연구 활동 이외에도 중국 생활은 수없이 많은 모험과 탐방으로 가득했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틈틈이 중국 친구들과 중국의 명승고적, 주요 관광지 등을 여행하며 중국의 모습을 찾아 나섰다. 북경은 중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서 상하이/소주/항주(북경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에서 가까이는 톈진(기차로 30분) 및 북경 내 명소들까지 다양한 지역을 주말 및 공

휴일을 사용하여 여행하였다. 과연 중국은 급격하고도 규모가 큰 발전을 통해 변모하고 있었다. 도시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마천루와 금융/경제/쇼핑센터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거리를 누비는 수많은 외제차들은 높아진 경제 수준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성장과 몇몇 도시에 집중된 발전은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중국 친구들과 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북경, 상해 등 대도시 지역은 급격한 발전 및 성장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젊은이/노인 할 것 없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는 정말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고, 심지어는 작은 집에 가족도 아닌 사람들과 10명이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것이었다. 내가 목격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거대한 마천루와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걸인들과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계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중국친구들도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젊은 층들의 높은 사회 및 경제 의식이 중국 지식층들 사이에서 높게 형성되어 있는 듯하였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반성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제 발전만큼이나 내게 와 닿은 것은 잘 보존되어 있는 중국 고유의 모습들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었다. 특히 대도시 바로 옆 지방의 중국 고유 모습과 절경들을 볼 때면, 내가 한 국가 안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느낌이었다. 각 지방마다 사람들은 특색이 있는 복장에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서 구별이 될 정도였다. 또한 중국 생활 및 여행 중 가장 즐거웠던 점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중국은 세계 최다 종류의 음식 보유국답게 수없이 많은 재료들로부터 매우 다양한 조리법을 바탕으로 한 각양각색의 요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별로도 재료, 요리법, 심지어는 음식의 짜기와 맵기 정도도 확연히 다른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화 탐방을 통해 넓힐 수 있었던 식견, 새로운 경험들도 Campus Asia 교환학생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수확이었다.

Campus Asia와 미래의 참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소주 지방의 먹거리 거리 앞에서



상하이 주자각 절경과 함께



CampusAsia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한 텐진 야경

약 5개월에 걸친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지금, 수기 작성을 통해 그간의 기억을 되살려보며 이 기간이 내 평생에 있어 잊혀 지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이 없다. 이와 같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Campus Asia 관계자 여러분과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처음 지원할 때부터 학교 등록, 연구 활동 및 마무리까지 학생들이 원활하고 용이하게 서류 처리를 할 수 있게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Campus Asia 체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처럼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및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게 될 학생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조언을 하자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얻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언어와 적극성이다. 언어는 그 나라의 가장 큰 문화이자,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 수단이고, 현지 체류기간을 풍성하게 해줄 중요한 도구이다. 1학기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는 교환학생의 특성상 현지에서 언어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쉽지 않다. 또한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영어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우선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추천한다. 약 6개월 정도 충실히 준비한다면, 현지에서의 6개월이 훨씬 더 보람차게 될 것이다. 이는 Campus Asia 측에도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 지원자들에 한해서 언

어 성적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원 및 합격 후 현지로 출발하기 전까지 주어지는 3개월은 언어의 기초를 닦기에는 충분치 않다. Campus Asia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보다 준비기간을 길게 잡고, 언어 공부를 충실히 한 후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Campus Asia 측에서 여력이 된다면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언어 학습 모임 등을 주선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적극성이란, 낯선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중국 및 일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되고 현지 생활이 더 따뜻해 질 것이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니 만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저것 더 많은 것을 체험해 보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Campus Asia 미래 참가자인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중국에서의 넓고도 깊은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 설렌다. 언제나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움과 도전은 가장 큰 기회이자 특권이다. Campus Asia를 통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을 갈망하며, Campus Asia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동아시아 공생을 향한 첫걸음, CAMPUS Asia!



김재원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 - 길림대 - 오카야마대)

대학원생도 교환학생이 되나요?!

해외 봉사, 어학 자격증 취득, 동아리 MT, 유럽여행, 휴학 등 대학생이라면 필수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원 없이 해보았지만, 유독 유학생활동은 경험해보지 못한 채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늘 아쉬움이 남던 가운데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서는 대학원생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기숙사 제공, 생활비 보조 등 캠퍼스 아시아의 파격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한 이유는 바로 내가 대학원생이라는 점이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게 똑같이 물었다. 대학원생도 교환학생을 가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이 섞인 질문은 나를 더 고민하게 만들었다. 길림대에 도착해서 만난 대학원생들 역시 내가 휴학하고 여학연수를 온 것이 아니라 교환학생이라는 점에 다들 의아해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2년 안에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원생은 보통 직업도 포기한 채 2년 동안 학업에만 매진하는 편이다. 게다가 외국어 실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한 외국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시간낭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교환학

생은 흔치 않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 실력이 초급이었던 나는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교환학생 1년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차분히 생각해보았다. 이것은 대학원생이라는 나의 조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캠퍼스 아시아 그리고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먼저 나는 길림대학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나의 전공은 역사, 구체적으로는 고고학이다. 다행히 우리학교와 교류를 맺은 길림대는 중국 내에서 고고학적으로 꽤 영향력 있는 곳이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신석기시대' 방면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중국어만 잘 한다면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얻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어학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본토에서 배우는 언어가 실력도 빨리 늘고 실질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중국어가 꼭 필요한가? 우리나라 고고학은 근래에 빠른 발전을 보이지만, 여전히 외국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상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어나 일본어 실력 겸비는 나의 연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렇게 일종의 합리화(?)를 시키고 나니, ‘캠퍼스 아시아’ 이 기회는 나에게 다시 못 올 마지막 기회였다!

준비하기!

나의 중국어 실력은...약 9년 전에 고등학생 때 배운, 그리고 작년에 중국어 학원 초급반 2달 정도 다닌 것이 다였다. 중국 가기 바로 전에 HSK3급을 땀으니...그냥 완전 초급이라 할 수 있었다. 중국이 가깝게 느껴져서 인지 몰라도 중국어를 못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중국으로 출국 전까지 중국어 학원에 다녔고, 방학 동안 캠퍼스 아시아 담당선생님이신 김동건선생님 수업을 들었다. 이때 배운 내용이 나의 1년 유학생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원에서는 중국어 기초를 다졌고, 김동건선생님 수업에서는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 역사, 중국 영화와 음악 감상 등을 통해 중국 문화를 접했다. 중국에 가면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중국 여학생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한국인인 나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중국 문화를 모르고 그들과 대화했다면 나는 자칫하다가 문화 우월주의에 빠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할 때, 내가 아는 중국 문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대화하니 서로 존중하는 느낌도 들고 대화도 잘 통하니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중국인 친구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다. 중국어 공부는 기본이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기를 강력 추천한다!

한참 부족한 중국어 실력이 그래도 겁이 나서 회화 책과 중국 관련 책을 몇 권 챙기는 것으로 중국어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연 먹는 문제가 아닌가싶다. 처음 가는 유학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했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다’는 말이었다. 그

리고 사실 나는 한 달 동안 장춘에 가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장춘에 대형마트도 있고, 장춘 음식이 내 입맛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음식이 맞지 않는다면, 한국 음식과 거의 비슷한 조선족 식당도 있고 아니면 기숙사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동북식 탕수육 ‘궈바로우(锅包肉)’와 세 가지 신선한 채소가 어울린 ‘띠싼시엔(地三鲜)’을 맛본다면 한국음식이 그다지 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유학생 기숙사 ‘우의회관’



유학생 기숙사 - 우의회관 (友誼會館)



중국 동북 음식 - 锅包肉, 地三鲜

은 공용 주방이 있는 2인 1실 기숙사이다. 방은 조금 작지만 그래서 더 아늑한 느낌이다. 한국인 비율이 높아서 한국인 룸메이트가 될 확률도 높지만,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우의회관에 살기 때문에 룸메이트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편이다. 장춘의 날씨는 봄은 짧고 겨울이 굉장히 길다. 우의회관은 뜨거운 물이 정해진 시간에만 나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계절에 맞게 난방 조절을

해줘서 겨울에는 따뜻하다. 여름에는 한국보다 덜 덥지만, 겨울에는 한국보다 훨씬 춥다는 점을 생각해서 유학 준비를 해가면 된다.

공부는 이렇게!

설렘을 가득 안고 도착한 길림대에서 나는 바로 고난에 봉착하였다. 대학원생은 어학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를 받았다. 중국어 실력이 바닥인 내가 이 상태로 무슨 수로 전공 수업을 이해한다는 것인가. 용기 없던 나는 결국 중국어는 독학하면서 전공 수업만 들었다. 사실 지금은 그 때 상황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중이다. 중국의 시스템은 한국보다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학 수업 선생님을 설득하거나 사정을 설명했다면 청강이 가능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중국어실력으로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했다. 길림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했지만, 나는 길림대로부터 부여받은 ID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관련 모든 일은 직접 발로 뛰어야 했다. 고고학 사무실에 찾아가 수업목록을 받아서,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성적표 역시 직접 찾아가서 받았다.

다들 나에게 중국어 초급 실력인데 전공수업을 어떻게 들었냐고 물어본다. 그런데 정말이지 나에게겐 전공수업이 좀 더 이해하기 쉬었다. 교수님 말씀의 대부분은 전공용어였고, 그래서 나는 수업 내용의 80%는 캐치할 수 있었다. 수업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커졌다. 수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방식이었다. 대학원 수업과는 별개로 본과생 즉 대학생 수업도 청강했었는데, 마치 고등학교 수업시간 같았다. 약 6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하나의 반으로 이뤄져서 하루 종일 다 같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다. 교수님은 PPT 자료로 수업

을 진행하시는데, USB를 꼭 챙겨가야지 쉬는 시간에 교수님의 PPT 파일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공 용어 듣기만으로는 수업 내용을 완벽



고고학 수업시간



눈 오는 날 길림대학교 모습

하게 이해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심한 원래 성격을 버리고 과감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나의 노하우는 바로 ‘혼자 있는 중국인 친구를 공략하자!’였다. 나는 수업 시작 전, 혼자 있는 중국인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인임을 꼭 밝혀야한다는 점이다. 혹은 그 친구 눈에 띄게 한국어로 크게 필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영

토가 넓어서 내가 그냥 중국어를 조금하면 어디 다른 지역 사투리를 쓰거나 조선족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택시를 타도, 길을 다녀도 자주 일어난다. 다양함이 어색하지 않은 중국에서만 겪을 수 있는 문화충격이었다. 한국인임을 밝혀야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나를 조금 챙겨(?)준다. 그렇게 사귀는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나를 많이 도와줬고, 나의 중국어 실력까지 향상시켜준 고마운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은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나를 생각해준다.

약간의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어느 수업에서 이 방법으로 사귀는 친구는 그 역시 중국의 타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다. 그래서 친구 없이 혼자 앉아있던 것이었다. 그 친구는 길림대와 장춘에 대해 나보다도 더 몰랐고, 게다가 나보다 먼저 장춘을 떠났다..... 이 점을 유의하며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학문적 교류를 해보길 바란다!

놀 때는 글로벌하게!

길림대에서는 양말 공장, 위만항구 등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과 국제 관계 강의를 통해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에게 한·중·일 학생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줬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이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다.

그렇지만 학교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번정도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좀 더 교류하고 싶다면 다른 기회를 찾으려 한다. 우의회관에는 한·중·일 유학생의 문화교류를 위한 '우의학회', 그리고 한국인 봉사프로그램인 '우의봉사'가 있었다. 어학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던 나는 우의학회에 참가했다. 나는 오카야마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인 mai와 팀이 되어 '중국은 왜 자동판매기(자판기)를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를 연구하였다. 우리 둘 다 중국어 실력이 초급이었기



학술대회 참석
- 길림대학교에서 열린 공공 외교 포럼



중국 동북 최대 규모 양말 공장 견학
- 회사 경영에 대해 질문하는 유학생들

때문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위해 서로 열심히 중국어 사전을 두들기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장춘 쇼핑몰과 길림대 주변을 돌며 자판기 현황을 조사, 한·중·일 자판기를 비교 분석하고, 중국인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우의학회원들에게 발표하였다.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자판기 문화에 놀라고, 한국과 일본인 친구들은 중국에 자판기가 없는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흥미로워했다. 다른 팀들은 '중국 라면', '한·중·일 패션 비교'를 했는데, 이처럼 우의학회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부담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소규모 학회이다.

수업, 견학, 우의학회 외에도 좋은 경험은 바로 친구들을 통한 문화교류였다. 중국인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세 번씩은 만났던 것 같다. 사실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방 밖을 나가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생활과 별반 다



우의학회 -
'장춘의 자동판매기 현황' 발표 자료



우의학회 -
중국 사천라면을 선보이는 중국인 친구

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내가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연결해주고 문화 콘텐츠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마치 내 방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중국에 유학 왔음을

느끼기 위해 친구들을 자주 만났다.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는 중국어, 하루는 한국어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했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에 배운 중국인의 예절, 풍습, 사투리와 같은 중국의 문화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만약에 중국어가 고민이라면 우의회관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우의회관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과 나의 공통언어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 중국어 실력도 늘고, 새로운 정보도 얻게 되고 재미있는 공부시간이 된다. 나는 늘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정보를 검색해왔다. 몇 가지 인사말, 유명한 지역 이름 등을 미리 알아가면 친구에 대한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싶다. 왜 국가 간의 외교에서 '만찬'이 빠지지 않는 지도 이번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각자 나라의 대표 음식, 만약에 못 만든다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음식 소개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즐겁게 느껴졌다. 종교 문제, 국가 간 외교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라면 날이 선 대화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는 대화가 되었다. 그리고 요리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유학생활을 마치며...

캠퍼스 아시아 덕분에 걱정 없이 1년의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내가 1년 동안 배운 점을 고고학과 연계하여 짧게 요약하자면, 약 만 년 전에 해당하는 신석기 시대를 연구하면서도 한·중·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우선 신석기시대에도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사람들 간에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토기의 형태나, 흑요석, 조개껍질 등 고고학적으로



중국인 친구들과의 식사



유학생 친구들과 무슬림 식당에서

검증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침략했을 때 실시한 유적 발굴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의 고고학사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배제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고고학에서는 유물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는다. 유물에는 당대 사람들의 가치관 즉, 당대 사회와 문화가 담겨있고 여겨진다. 그래서 요즘 고고학계에서는 한·중·일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지하고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문자사용 이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의 관계는 문자사용 즉, '한자(漢字)'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해갔고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에서는 한자의 형식이 간단해졌고, 한국에서는 한글의 등장으로 한자와 한글이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일본 역시 한자에서 변형된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한자를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등 문자가 사용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자문화권의 공통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예로 나와 중국인, 일본인 친구는 말은 안 통해도 글로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다. 캠퍼스 아시아의 취지대로, 동아시아 고전학의 연구가 인간의 가치관이 담긴 '

언어'인 '한자'를 매개로 소통 한다는 점에서 이제껏 다른 분야가 해결해줄 수 없었던 동아시아 공생(共生)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1년이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아시아로 길림대에 파견될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인 대부분은 장춘과 길림대를 잘 모른다고 생각된다. 나는 항상 내가 '북한 위 쪽'으로 유학 간다고 설명해야만 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아직까지는 좋다고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길림대에 간다면 유학 생활에서 남는 것은 불평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겪은 바로는 길림대는 정말 괜찮은 학교였다. 그리고 장춘은 사실 놀 곳은 많지 않지만,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고, 중국어 표준어 공부하기에도 좋고, 물가가 굉장히 싸다는 점에서 나름 매력 있는 도시이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이해하고, 열린 자세로 유학 생활을 한다면 길림대, 장춘 그리고 중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캠퍼스아시아를 통한 동아시아 고전학의 새로운 구현



박상환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 - 길림대 - 오카야마대)

1. 들어가며

오늘날 동아시아는 유럽이나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주요한 글로벌 권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이 유럽연합인 EU와 발트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이 NAFTA나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권의 한국·중국·일본 역시 외교·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떠면서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유대·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근대를 겪어오면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거쳐 왔던 수많은 동아시아 담론이 있어왔던 것을 합리적·비판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적으로 계승시키는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앞으로 동아시아 세 나라가 보다 평화적이고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다양한 현안 문제들에 접근하여 그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 토대를 갖춘 인문학적 관점의 토론과 협의가 향후 동아시아 대내외적인 발전과 글로벌 사회의 바람직한 구현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필요성 위에서 필자는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각 대학이 상호 연계하여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 프로그램에 유학생으로 참여하여 연구자로서의 인문학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의 대학원생으로서, 성균관대학교(한국)—길림대학(吉林大学, 중국)—오카야마대학(岡山大学, 일본) 사업단에 속하여, 2013년 2월말 중국 길림대학으로 가서 한 학기 동안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같은 해 7월말에 귀국하였다. 그간의 유학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캠퍼스아시아가 취할 만한 점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자 유학 수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삼고자 한다.

2. 장춘(長春) 유학에서의 생활과 각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단에 계신 김동건 선생님께서 행정적 지원을 받아 장춘의 길림대학에 도착한 후, 유학생 사무실에 계시는 최선화 선생님의 협조에 의해 길림대학 유학생으로서 행정 및 기숙사 등의 수속이 이루어졌다.

필자의 본 전공은 우리나라 선인들이 남긴 한문과 한시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한국한문학이다. 넓은 의미

에서의 한문학은 우리나라의 문학을 다루는 한국한문학 뿐만 아니라, 익히 알려져 있는 동양의 여러 고전을 다루는 동양고전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동아시아 고전학과 부합한다. 한문학의 텍스트로는 한자로 된 문헌 전적을 다루게 되며, 전근대 중국과의 현전하는 공적·사적 외교문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필자는 한국한시 뿐만 아니라 전근대 한중문학교류 방면에도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중국 현지에서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줄곤 느끼던 차에 캠퍼스아시아를 통해 중국 길림대학 고적연구소에서 수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 길림성 장춘시의 2월말은 실로 강추위였으며 5월이 되어야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학 당시 필자는 우의회관(友谊会馆)이라는 기숙사에 짐을 풀고 머물렀다. 처음 우의회관 방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는 고국인 라오스에 가고 없었다. 짐정리를 마치고 밤에 잠을 청했는데 그날 밤에 라오스인 룸메이트가 마침 돌아와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기숙사는 건물이 오래된 감은 있지만 필요한 시설들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 캠퍼스아시아 교환학생들은 기숙사 내 아침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매 층마다 조리실도 있어서 음식을 해서 먹기에도 불편함이 없었다. 기숙사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있고 슈퍼마켓도 곳곳마다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했다. 등교해서는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하였다. 라오스인 룸메이트와 함께 종종 저녁식사준비를 하는 도중에 베트남 및 캄보디아인 대학원생들도 알게 되어 인사하고 지내기도 했다. 아울러 캠퍼스아시아 주최 측의 소개로 중국어 사용에 도움을 주는 중국인 튜터도 몇 명 알게 되어 어학 방면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길림대학에서의 대학원 전공 영역으로는 역사문학으로 배정을 받았다. 약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대

학의 수강신청 및 기초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적응할 수 있었다. 길림대학은 6만여 명에 달하는 재학생수와 6천여 명의 교수진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부 중점 직속 대학교이며, 캠퍼스가 다양하고 규모가 상당히 커서 장춘시 안에 길림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림대학 안에 장춘시가 있다는 향간의 말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중국의 명문대학인 길림대학에서 유학생 생활을 해나가며 매일매일 각오를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중국은 중세부터 조선사나 연행사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필자는 이번 중국행이 선인들이 가졌던 연행의 전통에서도 이어져 있다고 다짐하고 대학생활이나 모든 방면에서 성심을 다하고 생활면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다졌다. 더구나 길림대학으로 같이 온 성균관대생들이나 먼저와 있는 학생, 그리고 일본 오카야마대 학생들 가운데서도 필자는 박사과정으로 나이도 31살로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타의 모범이 되고자 낮은 외국 생활 가운데 학업에 성실히 매진하며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현지에서 생활하다보니 미숙한 중국어도 점차 나아졌지만 역시 한국인으로서 중국어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동북사람들의 인심이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친절할 것 같아서 장춘에 정이 많이 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다.

3. 고증학의 명문, 길림대학 고적연구소에서의 수학

중국은 봄에 제2학기가 시작하며 대학원은 1주일 늦게 시작한다. 유학생 사무실의 행정절차를 거쳐 필자는 길림대학 고적연구소 역사문학(吉林大学 古籍研究所 历史文献学) 전공으로 배정이 되었다. 과목은 3과목 총 9학점(석사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길림대학 고적연구소는 중국고문자학가 위성우(于省吾, 1896-1984) 선생, 중국역사학자 쥔징팡(金景

芳, 1902-2001) 선생, 동북사연구가 루오지주오(罗继祖, 1913-2002) 선생 등 훈고학자·문헌학자들에 의해 1983년 8월에 창건되었다. 물론 이 분들은 이전 세대의 분들이지만, 현재 고적연구소 역사문헌연구실에 재직하고 계신 세 분 교수님이신 쑨허난(孙赫男) 선생님, 왕리엔룽(王连龙) 선생님, 위하이보(于海波) 선생님 세 분으로부터 역사문헌학에 대해 자상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길림대학 고적연구소에는 역사문학 전공 외에도 고문자학(古文字学), 선진양한문헌학(先秦两汉文献学), 서법문헌학(书法文献学) 등 다양한 전공과 학위 과정이 열려 있다.

길림대학의 학생증과 학번은 나중에 부여받았지만, 수강신청 방식은 유학생 신분이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강신청 없이 고적연구소 행정실에 찾아가서 개설과 정표를 받아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한 후, 수업시간에 들어가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수업을 듣는다. 필자가 신청한 구체적인 과목명은 역사문학 전공으로 개설된 '판본목록학(版本目录学, 쑨허난 교수)'과 '변위학과 집일학 연구(辨伪学和辑佚学研究, 왕리엔룽 교수)' 그리고 '중국고대문화사-종교문헌학(中国古代文化史, 위하이보 교수)' 세 과목으로 총 9학점이었다. 과목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길림대학 고적연구소의 학풍은 중국 청나라 시기에 발전된 고증학이라는 학문의 학적 성과를 잇고 있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곳 교수님들은 한국의 한문 사용이라든지 한국의 서지학 등의 학문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시는 등 우리나라의 고전학적 학문 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셨다. 같은 학급의 친구들은 필자의 중국어 회화를 도와주는 한편, 스스로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알아와서 필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으며, 몇몇 같은 반 친구들은 필자를 변화가인 충칭루(重庆路)에 데리고 가서 서예 용구들을 파는 유명 상점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필자는 예전에 한국한시를 주제로 썼던 석사논문을 세

분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전달해주었다. 그 중 쑨허난 선생님께서는 관련되는 중국의 연구서 몇 종을 구해 직접 필자에게 건네주시기도 하셨으며, 친구들 역시 어떻게 이런 변체자로 된 한시 논문을 썼느냐고 깜짝 놀라며 한편으로 며칠 후에 필자에게도 동아시아 고전의 공통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논어』, 그리고 연구주제 인듯 돈황학을 다룬 연구서를 선물해주기도 하였다. 캠퍼스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한 유학생들이 학문과 학문의 인문학적 만남을 통해, 동아시아 고전학을 연구하는 공동연구자로서의 의식을 형성하며 자그마하지만 양국 학술상에 있어 친밀하고도 정이 담긴 학술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학기 성적은 고적연구소 행정실에서 수동으로 작성한 것에 직인을 찍고 받아오는 방식으로 유학생 성적표 발급절차가 진행된다. 길림대학 고적연구소 교수님들께서 각각 95점, 95점, 96점으로 필자의 실력에 비해 과분한 성적을 주셨다. 아마도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주신 것 같다. 성적표 양식은 고적연구소 행정실의 기본문서서식을 통해 입력 작성되며, 하단에 길림대학 인증의 '길림대학 고적연구소' 도장이 찍히게 되었다. 이처럼 필자는 박사과정의 소중한 9학점을 중국의 명문대학인 길림대학에서의 뜻 깊은 학문 수학과 학술 교류를 통해 취득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의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든 길림성 장춘시를 떠나게 될 즈음에는 가르쳐 주신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며, 함께 공부했던 중국인 친구들과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캠퍼스아시아의 한국, 일본 동기들, 그리고 기숙사 친구들과도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돌이켜보면 길림대학에 한 학기 동안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동아시아 고전학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역사문헌학의 정수를 접하게 되었다는 감회가 든다. 캠퍼스아시아를 통해 이러한 인문학적

전문소양이라고 할 만한 주요 학업방면에서 많은 점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동아시아 고전학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연구자로서의 자세 등이 이전보다 더욱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4. 길림대학 캠퍼스아시아 측의 학습 프로그램

캠퍼스아시아는 캠퍼스아시아 학생들의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별도의 특강도 개설하였다. ‘조선반도 형세 변화와 동북아지구 안전(朝鮮半島形勢變化與東北亞地區安全)’이라는 제목으로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의 쟁후에이쯔(張慧智)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셨으며, 그 외에도 여러 번 특강을 개설하여 강의해 주셨다. 학생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캠퍼스아시아 사업은 이러한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특강과정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교외 프로그램이 아울러서 진행되었다. 중국의 현지 문화재 체험 및 기업탐방 등을 통하여 현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길림성 요원시에 위치한 동북 양말기업을 탐방 견학하여 공장부지 및 제조공정을 견문하고 설명회를 통해 동북 양말기업의 기업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날에는 장춘시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살았던 위만황궁을 견학하여 식민지시기 동북지역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 미술가들이 출품한 조각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 조각공원에도 방문하여 앞으로의 중국 현대미술의 추세에 대해서도 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길림대학 캠퍼스아시아 자체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현대와 과거와 미래를 수준 높은 차원에서 접할 수 있어 의미가 상당히 깊었다고 할 수 있다.

5. 나오며—균형적 시각의 정립

지금까지 필자의 캠퍼스아시아 길림대학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장춘(長春) 유학에서의 생활과 각오’, ‘고증학의 명문, 길림대학 고적연구소에서의 수학’, ‘길림대학 캠퍼스아시아 측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간략히 첵터별로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유학생생활을 경험한 입장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고전학에 대한 견해로서 비전(VISION)의 심화된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고전학에 있어서 캠퍼스아시아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동아시아 고전학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앞서 본문에서 기술한 필자의 캠퍼스아시아 유학생생활을 통한 모색과 수학·연구·교류 등의 학술방면을 통해 작게나마 실천적으로 접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유학생생활을 통해 필자에게 있어 새로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동아시아 고전학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필자가 동아시아 고전학을 보는 관점이 다소 막연히 ‘보편성’이라는 부분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에, 이러한 유학생생활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심화된 비전으로, 동아시아 고전학은 동아시아의 보편성 못지않게 각각의 나라간의 ‘특수성’도 상호간에 균형 있게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논이라는데 한계가 있지만 현재 캠퍼스아시아 성균관대—길림대학—오카야마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문화 공동성의 모색’에 있어 ‘문화 공동성’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데 다시금 강조될 만한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이해되는 위에서 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 있는 조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명제를 포용하면서도, 결국 그것을 뛰어넘어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고 본다. 실제로 필자가 중국

의 고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것만큼이나 장춘의 여러 중국 선생님과 중국 친구들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고유한 학문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보였으며, 필자 개인이 가지는 ‘한국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있었다. 또한 캠퍼스아시아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학생들이 ‘트라이앵글’의 형식으로서, 파견을 가는 학생이 있으면 파견을 오는 학생도 있다. 이는 세 나라 학생들이 상호 국가에 대한, 즉 ‘상대방의 특수성 인식 및 교류 수학’이 ‘보편적인 담론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적 사례로 파악된다. 이렇듯 동아시아 고전학을 공부하는 연구자가 문화 공동성이라는 인문학적 모색을 구현하는데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

하고자 하게 된 데에는 바로 캠퍼스아시아 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그 캠퍼스아시아 유학생생활은 뚜렷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아시아라는 문화 공동성과 인문학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개별 연구자 및 학생들에 대한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의 효용이 이처럼 커다랗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동아시아 각국 간의 현안문제 해결 등 세 나라간의 이해와 우호 증진에 대한 차세대 핵심인재들의 노력이 발전적으로 수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圖〉 중국의 행복소학교(幸福小學) 어린이들과 필자.

Discovering Treasures in Korea

Zhao Hanyu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Peking University–University of Tokyo



To Be on the Road

The Soul and the Body, at least one of them should be “on the road,” for life is a journey,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hose books we read and places we have been may deeply shape the trajectory of our lives. In this sense, participating in the CAMPUS Asia program is an exceedingly wise choice I made, and Korea has become an unforgettable stop-off in my journey of life. As a student of International Studies, I am convinced that in order to grasp the essen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s, merely studying theories in textbooks is far from enough. What would be indispensable is the REAL experience in the REAL world. The importance of combining theory and practice is always being kept in my mind.

Based on my one-year overseas stay in Japan as a double degree student in Waseda University, I know exactly how important the hands-on experience in a foreign country is in contributing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politics, culture, traditions and socio-economic dynamics embraced by that land and people. More importantly, it would help to overcome stereotypes and misperceptions on the image of that country. Though Korea,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has formed so many historical and cultural connections with the Chinese civilization, it was somewhat shameful that this country remained more or less as a “blind spot” for me. Hence I intent to seize the precious opportunity to study 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determined to portray Korea through my own eyes.

Life on Campus: My Intellectual Journey in SNU

I still remember clearly the excitement at the moment I encountered the key-shaped SNU main gate, the most well-known monument on campus representing the everlasting spirit of this prestigious institute. The motto on the SNU

emblem reads “Veritas Lux Mea,” Latin for “Truth is My Light,” and the main gate symbolizes that this university holds the KEY to TRUTH. Living up to the motto, SNU community not only shouldered the great responsibility for Korean modernization, but took the pioneering role in the national democratization. The courage to sticking to truth,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and fighting against unjust authorities are the fundamental virtue and charisma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us every time passing through the charming campus, a sense of respectfulness appear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 highly internationalized academic atmosphere, culturally diverse students and experienced faculty in GSIS make it an ideal place for me to enrich my knowledge on international issues and to improve academic capacity. In Prof. Park Tae Gyun’s course, the History of Korea’s Foreign Relations, a very comprehensive and complex picture of South Korea-US relations was vividly presented to us, and those critical junctures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including its economic take-off and struggle for democracy gave me deep impressions. Right now I could say, with some confidence, “I learnt the history of South Korea.” Prof. Park Cheol Hee, with his top expertise in Japanese studies, guided us in a wonderful intellectual exploration in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This seminar not only greatly enhanced my understanding of political and social dynamics in Japan, but

also trained my critical thinking and analytical capability required in social science. In the semina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aught by former Ambassador Cho Chang Beom, we touched upon almost every critical and hot-debated issue 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anging from strategic competition in East Asia to terrorism and nuclear proliferation. During our fruitful discussions, I further confirmed that comparative perspective and pluralistic discourses are urgently needed to avoid biased judgment or oversimplific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Courses are not the single source of my intellectual pleasure in GSIS, “Round Table”, an open platform for students to take the initiative to discuss interesting topics in a certain area, is definitely the other one. Every lunch time from Monday to Thursday became truly enjoyable and thought-proving moments when young people from totall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ere sharing our experiences and thoughts together and expressing our genuine concerns on serious issues around the globe. We discussed the US government shutdown and the prospect of “Obama Care”, for example, in the US Round Table; we debated over the political reform in China and changes in its foreign policies in the China Round Table; we reflected on the prevailing phenomena of corruption and poor governance suffered by Africa countries in the Developing Country Round Table; and surely in our self-organized “Campus Asia Round Table”, we analyzed some common challenges faced by Korea, Japan and China, such

as historical disputes and economic integration, etc. In the process, we learnt the real important thing is not persuading others, but to understand and respect divergent views or positions. I am planning to promote and spread this creative form of Round Table in my home university after coming back to China.

In addition, the distinguished lectures held by GSIS and other institutes in SNU inspired me a lot as well. I feel very lucky to listen to those leading figures in academia and policy circles. For instance, the conversation with Director of the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vealed the mechanism of policy formation in the US Congress and how non-partisan staff tried to provid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congressmen. In the lecture given by Madame Christine Lagarde, the managing director of IMF, not only did she pinpoint the potential and challenges in Korean economic performance, but also, based on her personal experiences, passionately encouraged female students to pursue their goals boldly.

Beyond intellectual activities, SNU also brought me, a foreign exchange student, a strong sense of belongings and made me feel warm in this cold snowy winter. The SNU Symphony Orchestra Concert by the College of Music and 2013 End of Year Concert by SNU Faculty Choir were so impressive and touching. When I read the welcoming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faculty choir that this annual concert was especially prepared for foreign members of SNU who might

have been unintentionally excluded from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on campus, deep gratitude was coming from the bottom of my heart.

Embracing the Beauty of Korea

Through field trips organized by the supporting team of Campus Asia program and personal explorations in Korea, I find myself gradually approached this multifaceted country and attracted by its fascinatio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past and present, East and West, all intertwined in the "Korean style".

A Traditional Korea: The trip to JeonJu brought us the experience of living in traditional Korean house, Hanok, tasting abundant Korean cuisines, and studying ritual manners in Korean traditional customs; the Royal Palace, Gyeongbokgung, though still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manifests the glorious history of Joseon dynasty; Insa-dong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xemplify great efforts made by Koreans to conserve and promote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 Modern Korea: Rapid economic development gave birth to a highly modernized and vibrant Korea. Myeongdong has become the paradise for demanding consumers; Coex Mall is an underground kingdom of entertainment; Cheonggyecheon stream, a previous dirty drain in the cit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romantic public place in Seoul; N. Seoul Tower on the Nanshan Mountain serves as the landmark of the Capital. World famous transnational corporations, such as Samsung, Hyundai, LG, and SK, are telling the story of "Han River Miracle".

A Globalized Korea: Korea is also an example of successfully combining indigenous uniqueness and cultural pluralism. Numerous cafe's in almost every corner of Seoul demonstrate a prevailing culture of coffee and a globalized life style; the APEC house in Busan is a manifestation of Korea's growing role in global leadership; NANTA, a comedic show perfectly merging Korean musical elements with modern kitchen utensils, has achieved global popularity. Before watching it, I could not imagine a performance without language could make sense for audience. After



the show, however, I believe good art could just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without a word.

A Democratic Korea: Korean people cherish the value of democracy and freedom, which they once strived so hard to achieve. Still living under an authoritarian or party-state regime, I keep trying to find what the Korean case would shed light on the political reform in my motherland. The visit to the National Assembly gave me a vivid lesson on how democratic institutions (check-and-balance) function in Korean politics. The Seoul City Hall is another best example of good governance and public service. A pair of big ears painted on the entrance of the City Hall symbolizes that municipal officials are willing to hear the voice from their people. After stepping into that building, I felt comfortable and relax, realizing this place is open for everyone rather than an opaque institution of power and authority.

A Determined Korea: The trip to the Demilitarization Zone (DMZ) is the one I had longed for. It is said to be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 in the world, but what I took away from DMZ is the Korean determin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peace on the peninsula. The 38 parallel is not just a line of separation or hatred, but a mark imprinted so deep in the fate of nations and peoples, both Korean and Chinese. However it is not insuperable physically and mentally. I hope and believe DMZ will eventually become a historical concept. And more importantly, our generation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deal with the Cold War legacy in North East Asia more wisely.



Final Thoughts

Realizing how many commonalities and similarities which China, Korea, and Japan share culturally, I feel quite pitiful that historical hatred

and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se countries sometimes overshadow the strategic trust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However, fortunately we have well-designed and organized exchange programs, such as CAMPUS Asia,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to build strong connection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n three nations. If we can truly overcome the ethno- and culture-centrism, and try to nourish the identity and responsibility of "global citizens" instead of sheer national identity, I think this would be the greatest accomplishment of CAMPUS Asia Program!

The Campus Asia program and SNU have brought to me so much wisdom and so many touching moments. Prof. Park Cheol Hee has paid lots of attention to design and refine the program, and the supporting team, Ms. Lee Nakyong, Park Minseon, Kim Jinho, Lee Enjun, and Kim Nayeon, made great contributions to organizing this fantastic program. A few words of appreciation are far from fully expressing my gratitude. Nevertheless at last I want to say, Thank you GSIS! Thank you SNU! Thank you Seoul! Thank you Korea!

'시차극복'의 일본 유학 체험기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고베 GSICS에서의 유학생활 체험기



배은지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북단대 - 고베대)

2012년 1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의 나는 갓 2년차가 된 의류회사의 수출영업부 사원이었다. 대학 입학 이후, 1년간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착실히 시간을 달려왔다. 간절하게 입학한 첫 회사였지만, 1년이 지나 반복되는 업무일과 속에서 내 안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 이것이 단지나의 게으름이나 인내심 부족인지 아니면 진정 속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했다. 설 연휴를 쏙개 다녀온 밀라노 여행은 늘 새로운 것을 접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했던 인턴 시절의 나를 상기시키며, 내가 느끼고 있던 것이 성장에 대한 갈증이라는 답을 내려주었다. 이러한 고민이 꼭 나만의 것이거나 그 시기에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못하게 될지도 못할 일을 향해 행동을 옮기기로 했다. 그 고민과 실행의 결과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입학이었다. 8월 21일부로 사직하고 이튿날인 22일에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듯이, 휴지기간 없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무언의 '사회표

준시각'에 맞춰 사는 것은 나에게 참 중요한 일이었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약 3년만에 다시 시작한, 학부 때와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어렸다. 'Pivot to Asia'로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 리더로서의 한국과 리더로서의 한국 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을 공부하고자하는 목표 하에, KIEP의 현지 조사 장학생, 논문대회 입상, GPAS 장학생으로 늘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했다. 하지만, 전 직장 동료나 같은 시기에 취업을 하였던 동기들이 진급을 하기도 하고 그 동안의 경력으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보면 나는 내가 그렇게 중요시하던 '사회표준시각'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떠난 손석희 아나운서나, 50대에 안정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일본 미대에 유학을 떠난 김정운 박사가 그렇듯, 그들의 과감한 결정 뒤에는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보장된 달콤함을 넘어서는 철저한 결정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더 내 결정과 도전에 책임

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할 필요를 느꼈고, 고려대 국제대학원 입학 전 재학생들이 마련한 입학설명회에서 고베대에 파견 예정이었던 이현경 선배를 통해 알게 된 CAMPUS Asia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CAMPUS Asia를 지원하기 전까지 나의 학업은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 수립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이 신흥 지역으로써 아무리 발전 가능성이 크고 학문적 연구가 최근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동북아의 강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없이는 나의 학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중, 일 3국이 각국이 가진 위험관리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CAMPUS Asia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중국의 푸단대와 일본의 고베대라는 두가지 선택 중에 일본의 고베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재일동포 가족을 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노출되어 있었고, 재일동포와 일본, 한국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두 번째로, 대학원에 오면 꼭 업무의 쓸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하나 더 공부해보고자 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조금 수준은 공부를 했던지라 가장 마스터하고 싶었던 언어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 고베대 파견시 제공되는 장학혜택(왕복항공권+매달 80000엔 생활비+아파트형 기숙사)와 고베대에서의 유학환경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다. CAMPUS Asia 모집을 위해 개최된 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위의 지원 동기와 프로그램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한정선 교수님의 “이제는 한일간의 복잡하게 얽힌 역사에 서로 상처를 주며 과거에 머물기보다, 어떻게 양국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은 가슴에 깊이 박혀 지원을 확신하는 동기가 되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내가 살고 있는 고베의 아파트형 기숙사

교환 프로그램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지원 당시 나는 2학기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졸업을 늦추고 싶지 않았으므로 3학기에 교환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택하였다. 지원동기를 적은 지원서와 어학성적표를 제출하였고, 며칠 뒤, 한정선 교수님과 이승호 교수님과 2대1 면접을 10여분간 보았다. 면접에서 지원동기와 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동남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주 조언을 얻었던 이승호 교수님께서는 동남아가 아닌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드려야 했다. 또한 복수학위와 교환 2가지 중에서 왜 교환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복수 학위를 받는 것은 의미있을지 모르나, 4학기 안에 졸업을 하여 다시 직장인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해야 했다. 만약 지원 확신이 일찍 섰다면, 꾸준히 지원동기와 포부를 평소에 교수님께 어필하며 일본 관련 특강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면접 다음 날, 합격 발표가 이메일을 통해 왔으며, 그렇게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의 일명 ‘시차극복’ (사회에서 무언으로 정한 ‘사회표준시각’에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내 결정과 도전에 책임지는 적극적인 삶)을 위한 유학이 시작되었다.

입국 전 준비는 학지부와 고려대의 CAMPUS Asia 그리고 고베대의 CAMPUS Asia 측에서 무리 없이 도와주시므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세가지는 첫 째, 일본어

학 공부와 둘째, 휴대폰, 인터넷 관련한 부분 그리고 셋째, 초기 정착 자본이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유학생의 기본 자세임을 상기했을 때, 일본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일본어 공부를 해오는 것이 좋다. 나는 합격 발표가 난 직후부터 국제대학원의 일본 관련 세미나를 통해 알게된 일본 유학생의 소개로 리카와 마나와 함께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언어교환을 하였다. 일본으로의 출국 날짜가 9월25일로 정해지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30만원의 일본어 학습비를 지원해 주었다. 강남의 일본어학원에서 매일 2시간씩 수업을 하였는데, 단기간 내에 문법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예상보다 일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해서 조금 실력이지만 한국에서 공부를 해온 것이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것으로 자리잡았으므로, 이 부분을 자신에게 가장 맞는 플랜으로 출국 전 조사를 해 올 필요가 있다. 요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 새 휴대폰을 구입하여 계약하기에는 체제 기간도 짧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다. 새 휴대폰을 구입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데이터 요금 또는 무선인터넷 요금을 내고, 또 집에서는 유선인터넷 요금을 따로 내기에는 부담이 컸다. 나로써는 6개월 정도의 체제 기간동안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일본에 개통하여 쓰고, 무선 인터넷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므로, 이에 맞게 ‘포켓와이파이+일본유심칩+일본 개통 및 요금제’ 플랜을 선택하여 한달에 한화 약6~8만원을 매달 내고 있다. 포켓와이파이의 데이터가 무제한이고, 5개의 기기까지 연결가능하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며 일본 입국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플랜을 후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일본에 와서 알아보기에는 발품도 많이 팔아야하고, 계약 조건을 비교

하기 위해 일본어도 능숙해야 하고, 휴대폰이 없는 생활을 몇일간 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정착 자본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CAMPUS Asia 프로그램에서 주는 생활비가 매달 말일경에 입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정착 비용이 40여만원 정도 들었다. 초기 정착 비용으로 미리 생활비의 일부를 먼저 줄 수 있다면 학생의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기모노 체험

그래서 나의 일본유학 ‘시차극복’ 프로젝트는 일본어 어학 공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개강 전 일주일 동안 약 6시간씩 CAMPUS Asia 측에서 일본어 기초 수업을 개설해 주었는데, 이 수업의 마츠이 선생님은 일본어 수업 뿐만 아니라 일본 초기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집에 초대해주셔서 기모노도 입혀주시고 일본식 다도도 가르쳐주시고 오코노미야키도 대접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개강 후에는, 고베 유학생 센터에서 유학생을 위한 무료 일본어 강의를 다양한 과목과 레벨별로 개설하였는데, 학부학생들에게는 학점인정도 되는 양질의 강의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고베 유학생센터에서의 일본어 강의는 일반 개강일 보다 2~3주 뒤에 시작하며, 일반 개강일부터 1주일간의 기간 동안 오리엔테이션과 레벨테스트가 있는데, 레벨테스트 결과 없이는 수업참여가 불가하였다. 레벨테스트의 결

과에 따라 반배정이 되지만 유연성 있게 한 단계 위, 아래의 수업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 어학강의는 레벨과 과목에 따라 시간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수업에 따라 듣지 못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공수업과 어학강의를 최선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짜는 것에 주의가 필요했다. 전공 수업과의 조율로 1시간30분의 일본의 강의를 일주일에 4개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보충 수업의 일환으로 고려대에서 같이 언어 교환을 했던 리카의 소개로 고베대 재학중인 재일교포 지영을 소개 받아,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언어 교환을 해오고 있다. 2월부터 봄방학이 시작되면, 고베 유학생센터에서의 일본어 수업도 종강이기 때문에, 2주 전부터는 효고 인터네셔널하우스에서 목요일 저녁 2시간씩 일본어 작문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 수업을 위해서도 레벨 테스트가 필요 했는데, 고급 레벨을 받아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보람을 느꼈다.

	일	화	수	목	금
10:40~12:10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	Risk Management	Law&Economic Development	일본어문법
12:10~13:20			언어교환		언어교환
13:20~14:50	Multilateral Treaty & Negotiation	일본어 듣기	언어교환	International Cooperation Law	언어교환
15:10~17:00	Economic Development Studies	Disaster Risk Reduction for Megaeearthquake			
18:30~20:30		국제법 스터디 모임		일본어 작문	

일본유학 '시차극복' 프로젝트의 두 번째는 치밀한 일정관리이다. 위의 표는 앞서 언급한 전공 수업과 일본어 수업을 조율한 나의 일주일 시간표이다. 고베대의 GSICS는 고려대 국제대학원 GSIS와 같은 개념의 국제대학원이다. 세부 전공은 국제개발협력,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경제로 총 4개이다. 국제통상이 전공인 나는 고려대의 학점 인정 기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졸업에 차질없게 수강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고

려대 국제대학원의 졸업인정기준 학점은 총 50학점으로 4학기 동안 이수하기에 비교적 빠박하고, 코어코스, 지역학, 일반선택과목,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이 각각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베대에서 수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필요 이수 학점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위험관리 관련 과목도 수강해야해서 이승호 교수님께 이메일로 조언을 얻어 전공 인정이 되는 경제개발 및 국제법 위주의 강의를 총 6개, 12학점 수강하게 되었다. 고베 GSICS는 개강 후 1주일 뒤 1주일간 수강변경이 가능한 고려대 시스템과는 달라, 개강 후 약 3주 뒤, 수강 철회만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고베대 학생들이 처음에 많은 수업을 수강하여 3주간 들어보고 철회하는 방식으로 시간표 관리를 하는 점이 독특하였다. 교환학생은 인터넷 수강신청이 불가하여 직접 교무부에 가서 수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철회도 같은 방식이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베 GSICS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에게 큰 좌절을 맛보게 하고, 성취의 기쁨을 기대하게 만드는 과목은 Multilateral Treaty & negotiation 수업이다. 국제 포경조약으로 모의재판을 하며 굉장히 전문적으로 국제법을 다루는데,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논리를 펼치는 연습이 어려웠지만 매력적이었다. 매주 2시간씩 이탈리아인 1명, 일본인 2명과 함께 스터디모



지진 및 수해지역 현장답사 - 아와지섬

임을 가지며, 일본과 호주의 국제 포경법 관련 분쟁 사례로 토론을 해오고 있는데, 수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Disaster Risk Reduction for Megaeearthquake와 Risk Management 수업에서는 2번의 현장 학습을 갔었는데,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복구 현장에 방문하여 NGO 활동가와 피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을 보며, 자연에 대한 겸손함을 가져야한다는 경각심과, 그 재해를 이겨내어 복구한 인간을 보며 인간의 생명력에 경외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위험 관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강원도 홍수 피해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정전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단지 이론 학습이나 현장 학습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사례에 내재화하는 연습이 특히 유익했다. 고려대의 박성훈 교수님과 푸단대에서도 교수님이 오셔서특강을 해주셨는데 자연재해 위주로 치우쳐 있던 수업에 중국과 한국



마츠리 체험

의 다른 분야와 관점에서의 위험관리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학업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일본 유학 '시차극복' 프로젝트의 세 번째는 일본 문화 똬스까지 체험하기이다. 이 곳 고베대의 지도 교수님이신 키무라 칸 교수님께서 논문 주제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기회도 많이 제공해 주셨다. 10월에는 오사카의 작은 마을에 가서 핫피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마쓰리를 즐겼다. 소규모 마을 단지 별로 자기만의 이동식 신사인 미코시가 있는데, 각 마을의 청년들이 함께 북을 치고 소리를 치며신을 기쁘게 하였다. 나는 일본 남성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은 덩치를 소유했기에 동네 어른들이 나누어 주신 일본 생맥주의 힘을 빌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본 청년들과 함께 미코시를 들었는데, 결국 다음 날부터 근육통에 고생했지만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12월에는 키무라 교수님의 비교정치 수업의 일환으로 일본 내 재일교포와 일본인의 서민 문화를 비교해보기 위해, 코리야타운이 있는 츠루하시와 일본 서민들이 터를 잡은 신세이카이를 방문하였다. 일본에 오기 전부터, 재일교포와 일본, 한국에 대한 관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츠루하시의 방문은 정말 뜻 깊었다. 일본이라는 땅에 차별 받으며 정착한 우리 교포의 삶이 오롯이 묻어 있는 츠루하시와 일본 서민들의 신세이카이는 어딘가 비슷하기도 하였다. 국적에 따른 차별과 부에 따른 차별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키무라 교수님과 학생들



호루몬 Horumon

기회였다. 뒷풀이로 먹었던 호루몬이라는 오사카 재일 교포가 고기가 비싸서 곱창으로 양념 불고기를 만들어 개발했다던, 한국음식 아닌 한국음식을 먹으며, 이 요리가 재일교포와 닮아 있다고 생각되었다.

고베 유학생 센터에서 함께 일본어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 여러 국가의 친구들과 일본 문화 체험을 함께 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효고국제고등학교에 가서 총 14개국의 고베대 친구들과 함께 일본어와 영어로 각자의 나라를 소개하며 일본 고등학생의 한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 제품 구매시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효고 국제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업 브랜드의 상관관계'를 논문 주제로 연구 중인 나로서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과 이해도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또한 프랑스인 4명, 오스트

리아인 1명, 인도인 1명과 함께 2박3일간 차를 렌트하여 교토북부와 후쿠이로 1인당 15000엔이라는 예산을 정해놓고 로드트립도 다녀왔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전공의 유학생 7명이 한정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 차를 렌트하고 어느 시골마을의 저렴한 료칸을 예약하고, 각자 가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을 공유하며 일본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여행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고베 GSICS에는 유학생을 위한 현장답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정되어



로드 트립 중 히코네성 앞에서

있는 장소에 방문 하고자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20000엔을 지원해 준다. 이를 통해 겨울 방학에는 나고야, 후지산, 도쿄를 방문하였는데, CAMPUS Asia 후배들이 이 프로그램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모기업 광고에서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을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면에서 일본인들은 언제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준수한다. CAMPUS Asia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부와 학교 관계자들과 많은 미팅을 했다. 이러한 미팅이 형식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시차극복'을 하고자 노력 하

였던 나의 유학생활동도 감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하고 있다. 혹시 CAMPUS Asia 프로그램 지원을 주저하며 이 글을 보고 있을 분들께 당신의 대학원 생활 또는 삶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제 NGO에서 긴급구호 활동가로 활동 중인 한비야가 그랬다. 한비야 "저는 들국화예요. 늦깎이, 그래요. 사실 사람들마다 생애 최고의 시절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이는 10대, 어떤 사람은 20대에 맞이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화라는 거죠. 가을에 피는 한 송이 들국화."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으로도 인생의 경험으로도 자신감을 얻은 나는 이제 사회에서 정해 놓은 시각에 대

한 부담을 극복하고 내 인생 최고의 시절을 준비하는 한 송이 들국화가 되어 보려한다. 마지막으로, CAMPUS Asia 프로그램 관계자 분들,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The things which I was gifted in Seoul"



Daisuke Kato Graduating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kyo
Seoul National University-Peking University-University of Tokyo

- The way I came to Campus Asia

In 2007 summer, it was my first visit to Seoul, as an activity of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A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I would have spent my half of twenties on thinking and dreaming the Asian society. I had participated ALSA activities a lot, became ALSA Japan's leader and discussed passionately regional issues of Asia. By this experience I started to think cooperation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is important to realize "Era of Asia".

It was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when I applied. So when I entered Public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okyo, I did not know and it was not my plan. But it was what I have waited for. I had to prepare my application essay and get TOEFL score. I got advice from my Korean friend how to express my Korean trips and experience and emphasize I am appropriate to this program. It was real good study for me to organize my application essay to understand myself. To get

TOEFL scores, I had to get help from private academy and take several times of tests. I spent more amount of money compared to my normal life so I got help from my parents and had to persuade them to go to Campus Asia program. I promised them I keep studying the National Officer Exam. It might be more normal choice to search jobs or prepare national exams in Japan. The program was what I waited for though, on the other hand, it became one big challenge of my life. Thankful for people's help near me, I could com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ally. I thought the phrase what my school dean said, "Experience the new world, develop yourself and move to another world with the power what you have learned. That movement is such a life."

- Experiences in Seoul

"Logic" is not enough

I got to know common sense in Japanese society is not always same as the world's one.

As one of the Japanese, I discovered myself emphasizing and caring the logic a lot. When persuading people, however, the logic was not so powerful. But approaching with bigger scale and thinking about the historical intention was taken more importantly.

For example, about comfort women issues in Japan, it was treated importantly whether the women were caught by soldiers or deceived by civil brokers. But before being obsessive with those tiny facts, more important thing was the works and idea of comfort women have risk to destroy one human's life. I mean the big picture Japan's side should not miss is we have to admit responsibility of this historical tragedy.

I could understand my cultural background well in my Korea life. Japanese people's strong point is making things perfect. For using our strong point effectively, we shouldn't forget big picture. I learned this from policy competition about Air Pollution with friends from China and United States, and we got first prize.

What might move people is "sincerity"

During my Campus Asia period, the East Asia's tension was politically serious. Even though it seemed each country's relationship was getting worse, that did not influence the relationship with my Chinese and Korean friends. In the class, I listened other people's opinion and explained how I learned. Surely, it is not easy.

When it was sensitive news that Japanese politicians visited Yasukuni Shrine, I went to

one lunch meeting for discussing this issue. I discovered that I was the only Japanese there, and it made me feel feared but at the same time it was challenging, because actually as Japanese, I wanted to explain something about the Yasukuni Shrine culture. But I tried to be open-minded. And I explained how normal Japanese people think about Yasukuni Shrine and colonization. The information that many Japanese people feel sorry about colonization seems to give fresh impression toward Chinese and Korean students.

Also we discussed about territorial issues. About Takeshima/Dokdo issue, I understood Korean view around WW2. The statement, because of lacking power, Korea cannot achieve justice was impressive. Probably, it's right regarding negotiation process of San Francisco Treaty. About this issue, I think it's better we start from same logic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e theory of "effective control." I learned some document regarding effective control of Korea. I think the document about "石島 (Korea want to state the island is same as 独島)" is not enough to persuade Japanese people. And also, basing just only the document, whether Korea can provide "effective control" is questioned. But if there are additional facts, I think Japanese people are persuadable. Yes, we care tiny logic a lot, but if there is tiny logic, we can understand it. I think this is characteristic of normal Japanese.

I played billiards with Chinese friends who became much closer after the tough discussion. And my Chinese friend taught me why Chinese

government has to take strong position toward Senkaku/Daoyu islands issue. The issue is relating keeping unification of China, such as Tibet and Taiwan. I understood make situation silence is what Chinese government actually want. And I also understand taking action with brave and sincerity sometime move people.

Even our countries and positions are different, we are partners of East Asia. We can grow up our friendship by drinking, traveling, playing sports and discussing. At the end of the semester, I assure this, with drinking 5 Chinese friends in Makgeolli restaurant of Sillim.

-My impression on Korea

The country of democracy achieved by citizens

Compared to Japan, Korea's democracy seems more active. Japan's democracy begun after Japan lost WW2. The beginning point of Korea might be not so different but I felt they achieved more active democracy by civil power. Japan adopts the parliamentary system though Korea has presidential system. Probably the different political atmosphere is coming from the systems, however, I wanted to focus on the people's character. From young to old, people come out to the city and passionately participate in the election campaign. That energy is unusual thing in Japan. I envied that energy. I thought Japanese society also needs

Etiquette and Child

The campus view of SNU is so wonderful. It was a great pleasure to study one year seeing all 4 seasons in the campus. Such a good campus is difficult to find in Japan. Standing dormitory's 8th floor balcony where I can see whole city, I can feel how this place is made precious and how Korean value students education.

I found Korean people care their children, and they spend much money on educating children. Sometimes, however, I feel some people are too much generous to their children. Some parents don't scold their child even though he/she breaks the public manner. For example, in the airplane to Jeju, I had to stand that one kid behind me keep kicking my seat. And I would like to say one more story about the sense of public manner. I loved to use the library. One alarm clock in the locker rang loudly, next day and two days after the same time it rang. It surprised me nobody called and asked the guard to stop the sound. Finally, I asked guard to deal with the problem. Even though it might be my prejudice or overreaction, sometimes, I felt inconvenience about the public etiquette.

Korean people are kind and don't hesitate to give affection to friend and family. On the other hand, the mind for caring etiquette might be weak comparing to Japan. For example, sometime people break line of cafe for their family. It's difference of our culture and both have merit and demerit. In Japan, we care public or the rule too much and sometime, it deprives energy

of innovation and revolutionary action. But if Korean young generation lost mind for acting public which people had, when they fought for democracy, it will be the serious loss of the Korean society.

Social gap and 민변 (Lawyer's NGO which act for public)

One key-word of Seoul is "energy". We can find lively places such as Hongdae (홍대) and Gangnam (강남). They have much more energy than Shibuya (渋谷) and Roppongi (六本木).

However, another key-word is the "gap". At the time of IMF crisis, many Korean elites lost their jobs. I had experience of getting surprised when taxi driver spoke fluent English. He was former member of Lion's club and had experience of studying in Japan.

These days, Samsung and some company have strong global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middle and small companies are weak and democratization of economy is serious political issue. Students start preparing to enter global company, right after they entered university. And their academic backgrounds will give big influence to their success. Child education is one of the main factors which Korean parents create debt.

One of the actors who are trying to solve this issue is NGO. For example, MINBYUN (민변) is lawyer's association which is founded by about 30 lawyers in 1988, including Park Won-soon who is lawyer, social entrepreneur and Mayor of

Seoul. This NGO supports individuals who want to prosecute big company and proposing policy for progressing economic democratization.

My Korean friend is member of this group. Young member of MINBYUN have dream to be lawyers and politicians. This group gave me impression of Korean future's potential.

- Tips on living Korea

"Hey, don't speak Japanese a lot in the public place. Yesterday was Samiljeol, Independence Movement Day (March 1)" This is what I heard from middle aged man in front of bus stop and made me feel a bit embarrassed. But I think it was unusual situation. Korea is developed democratic nation and Japanese do not have to feel worried about anti-Japanese emotion too much. But it is also true that we need to care Korean people's feeling about colonization. Especially, around the day of March 1,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might be better not to speak Japanese loudly.

It's unusual to warn other people's child here. If you find child who lack manner, it's safer just stand. To accept difference of culture can be wise choice sometime. Also, Korea is the country of Confucianism. In the bus-stop and cafe, old people cut in young people's line. Here is different from Japan where people have to care others, regardless their age. Respect old people and have generous mind seems important.

Finally, even the ticket counter of airport, clerks not always recommend most

reasonable priced ticket. "Client First" is Japan's commonsense but not of the world. When you purchase something expensive, you should say "값아 주세요 (Is it most reasonable price?)."

-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program

My recommendation is to create one mandatory class which all Campus Asia students have to take. Here, we will debate serious issues such as Territorial issues, Comfort women / sexual slaves, Yasukuni shrine, Compensation right of colonization,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Nuclear of DPRK, Rising China and managing security of this region,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 such as Environment, Aging and Pandemic etc. Through discussion, I am sure that students from three countries got to know new perspectives and themselves much more and can create more deepen friendships finally.

- Words of wisdom for future participants

Your action will change the future

More move, more return you will get. This program gave us great chance so we have to be proactive. Not just in class room, hanging out and traveling around with Campus Asia and other Korean students. We students are welcome to share different view point. So, don't hesitate to discuss any topic. Your action, your sincere behavior will surely move other students and create friendship. And such friendship will be the

force of future.

My Shisho(師匠), Professor Park Cheol-Hee

One of the best persons who I greatly feel thankful for is Professor Park Cheol-Hee. He made Campus Asia program and he is leading professor of Japan Study. He has meeting leaders of the world energetically and gave us interesting classes. I learned many things from his class and attitude, and that is the importance of universal liberalism, collaboration of Asian Countries and taking action.

"Take action, be Leader."

Based on experience and ambition which I got in new place, I will keep challenging.



Dynamic Asia, dynamic Asian



김한별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북단대-고베대)

Commonly said, Asia is dynamic: the continent is the biggest, the most populated, and still the most struggling part of the world. Northeast Asia, also constituting a big part of the continent, could be chosen to be the center of all the energies. This part of Asia is, from past there till present here, I confidently say the most beautiful part of the human world.

Campus Asia Program, a trilateral academic cooperation program in the region, was the stairway to dynamic beauty. It combines programs of three universities, each with slight difference in specialty. Korea University, my alma mater, provides International Studies, and Fudan University, the partner school, has Chinese Government and Governance program for Campus Asia program. For the goal of broadening and deepening knowledge in the region, Campus Asia was a decision without second question for me, and I selected Fudan University, from the ambition to have an expertise in China, especially.

Unfortunately to my mental health and

fortunately to my academic soundness, my experience with Campus Asia program in Fudan University gave me chance to realize that my 'understanding' over Asia was also another type of Asian fetish. Unlike the common Asian fetish that white men have over Asian women, my Asian fetish was as an Asian woman over Asian beauty and dynamics, with a deeper overestimation of my Asianness. In another sense, it provided me a chance to identity crisis in late twenties. My vague identity as a Korean was challenged or overwhelmed by the greater identity of being an Asian in China.

Fudan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globalized schools in China: foreign-national students, across all the programs, take more than 10% of total students, and some courses and programs are taught 100% in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where I belong now, is especially international in that sense, with 90% of all students in English program have nationalities other than Chinese □ like the

name of a broadcasting system in America, the situation there is ABC: Anything But Chinese. However, what we learn in the program, and the living environment we live even in Shanghai is also like the name of another broadcasting system in America, CNBC: Chinese, Nothing But Chinese. This seemingly sarcastic environment was a challenge for me for the first three months, as I have a typical Asian look in the face, and have a definite American accent in English, still use a strong Korean accent when I speak in Chinese, and I often talk and hang around with my Japanese friends in Japanese. I often felt the urge to fake my nationality, like what would this person say if I am from Japan? Would the vendor get angry, would the taxi driver be less friendly (considering the recent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would I get rip-off claiming Japanese, etc, although I never tried in effect.

On the other hand, Chinese, especially Shanghainese people often use the word 'Laowai (老外)'. It literally means old foreign, and is usually translated to mean non-Asian nationals having lived in Shanghai for long. Shanghai, with its unique modern history having 'concession' areas, is largely used to see foreigners in the city. A lot of expatriate communities in Shanghai already have decades of history, with some of which even reaches almost a hundred. Nonetheless, Asians are never called Laowai. In a sense, Chinese people do not differentiate Asians by their look, and also do not greatly care about Asianness.

Stuck between my own Asianness and

Chinese tolerance (or negligence) on Asianness, my first ever identity crisis struck me. I was born and raised in Korea, as a Korean. Being an Asian, and claiming it never contradict my Korean nationality. However, as Asia is a huge continent, with a countless varieties and dynamics which I partially understand based on my linguistic background, I felt uncomfortable to claim my Asian identity □ I felt myself too small to embrace such a huge identity.

Spending some more months in Campus Asia Program and Fudan SIRPA, in that sense, greatly helped me overcome this distorted identity crisis. The environment, as described previously, is a mixture of almost every nationality, and some of the colleagues were mixed in races as well. By listening to and interacting with the variety of classmates, as well as learning from the lectures of Chinese professors, let me naturally pass through the trivial crisis. I could realize that the more important part of me is to chew the learnings that I can have in the dynamic environment, and build my values as a master's student in the discipline. Everything else, in this truly global and dynamic world, is trivial.

Had not for Campus Asia, and my previous exposure to Chinese language, I could never have reached this simple but valuable lesson. In that sense, to overall program, I strongly suggest to strengthen pre-Program language program. Currently, the whole program only requires English proficiency, but for every aspect, to fully utilize the opportunities by Campus Asia

Program, proficiency in the destination country language is essential. I truly appreciate my school's consideration to provide subsidies for our Chinese lessons during the summer before we came to China, but a more intensive language program will definitely help students be the experts in this dynamic Asia, as a person truly having sense of Asian identity.

Nonetheless, Campus Asia Program has been my lifetime opportunity, both for my academic career and for my personal sense of identity.

Having spent half of the program, I have achieved my own sense of Asianness, and I will build my master's thesis with the sense for the next half a year left in Fudan. I am living my dynamic Asian life, although still struggling to fight over the dynamics of the region, and am convincing myself that I will be able to claim my dynamic Asianness without shame one day, thanks to the opportunities that I am having now in Campus Asia Program.



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공지희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사업단 : 서울대 / 성균관대 - 칭화대 / 인민대 / 상해교통대 - 나고야대)

1. 시작하는 글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캠퍼스아시아를 통한 일본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언 4개월이 흘렀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랐었던 넓은 학교 캠퍼스와, 낯설기만 했던 기숙사 그리고 물설기 그지없었던 도시 나고야도 어느덧 내 집인 양 익숙해졌다. 파견 후 약 120여 일, 짧으면서도 또 동시에 길었던, 하루하루 2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새롭고 귀중한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생활을 돌아보며, 캠퍼스아시아를 통해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려 한다.

2. 파견 前

1) 지원동기

대학 새내기들 갖 졸업한 2013년 1월, 학과 공지 게시판에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다.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에 대한 설명과, 2013년 2학기 파견 학생을 뽑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법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전무했던 나에게 동아시아 공통법 제정을 목표로 한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은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던 내가 진지하게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신청을 고민하게 된 것은 2학년 1학기가 시작된 3월 말, 추가 모집 공고를 읽었을 때 부터였다. 단순히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법 관련 과목에서 이전까지 들어왔던 행정학, 경영학 등의 전공과목보다 더 큰 흥미를 느낀 나에게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법을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파견국가 중 하나였던 일본은 중학교 때 부터 틈틈이 공부해 둔 일본어 덕분에 거부감보다는 관심이 더 많은 나라이기도 했고 학생 시절부터 막연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서의 장기 체류도 한번쯤 해 보고 싶다고 꿈꿔왔었기에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이유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가장 큰 지원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의 생활과 일본법에 관한 이해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3 시절부터 생각해 온 나의 장래희망은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를 고향의 품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그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출된

문화재를 소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관련국의 법체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반출 문화재를 소지하고 있는 일본에 파견되어 심도 깊이 일본을 알게 된다면, 나의 궁극적인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 과거사 청산 및 양국 간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동아시아 공통법 제정에도 유의미한 일보를 내딛는 일이 될 것이라 여기고 추가모집에 지원하게 되었다.

2) 선발과정 및 파견준비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뒤, 사무국 측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소 긴장한 상태로 면접에 임했지만, 담당 교수님과 사무국 조교들의 배려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 선발이 완료되고 난 뒤,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몇 달 뒤면 막연히 꿈꾸기만 했던 일본 생활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쁨 마음과 동시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파견이 결정되고 난 뒤의 2학년 1학기는 학기 중 공부와 캠퍼스아시아 파견준비를 병행하며 보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법 관련 특강에 참석하기도 하고, 같이 캠퍼스아시아 파견생활을 할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가졌다. 무엇보다 일본어 공부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 취득했던 일본어능력시험에도 다시 응시하였으며, 생활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해 일본 드라마나 영화 등도 참고하며 일본어를 공부했다. 학기 중이었기에 전공수업과 일본어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파견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으로 파견을 오기 전 7월에 응시한 일본어능력시험에서 2급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나고야로 갈 항공권을 구매하고, 일본에 가져갈 개인적인 짐을 챙기는 것은 물론 교환학생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들도 준비하였다.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주일 영사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였다. 개설 수업 목록과 전 학기에 파견된 선배들의 수기도 받아 미리 읽어보며 일본생활을 준비하였다.

3. 파견 後

1) 개강 전 준비

2013년 9월 24일, 부푼 마음을 안고 도착한 나고야는 아직 채 더위가 가시지 않은 한여름의 도시였다. 일본의 학사일정은 우리나라보다 약 한달 정도 늦었기에, 도착 후 개강까지 남은 일주일동안 일본에서 살기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았다. 입국심사 때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근무 가능 비자를 요청하였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 은행 계좌 개설과 거주지 신고를 끝마쳤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고, 기숙사 생활 및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안내받았다. 1년 동안 일본에서 사용할 핸드폰을 개통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지리와 나고야 시내 지리를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나고야 대학 측의 사무국을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받고, 강의계획서를 읽어본 후 수강신청도 끝마쳤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2013년 10월 1일, 드디어 나고야대학교에서의 첫 학기, 나의 2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다.

2) 전공 및 어학수업

첫 학기의 필수수업으로 지정되어 있던 '사회과학

을 위한 일본어' 외에 내가 선택한 과목은 전공과목 4개와 일본어과목 2개였다. 다음 학기에 일본법 관련 과목들이 많이 개설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학기에는 그동안 미처 배우지 못했었던 정치학 위주로 수업을 듣자는 생각이 들어 정치문서읽기, 정치학, 정치시스템론의 3과목과 대학원생 대상의 수업인 일본사법기구 수업을 골랐다. 일본어 과목은 필수수업인 사회과학을 위한 일본어 수업과 함께 아카데미 일본어 독해 및 작문, 그리고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을 수강했다.

총 7개의 수업 중 일본어 과목 3개를 제외한 4개의 전공과목은 모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에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다.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그것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었다. 내 의사를 전달하거나 발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수업들이었다. 특히 정치문서읽기와 정치시스템론 과목은 같은 캐나다인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과 보다 더 넓은 시야로 정치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길을 제시해 주셨다. 외국인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나 일본문제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 수업으로 들었던 일본사법기구 수업 역시 매우 인상적인 수업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 변호사들의 특강을 듣거나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을 방문하는 수업으로, 수동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 관련 지식을 전달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일본의 사법기관들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기회 역시 가질 수 있었다.

어학수업의 경우는 일본어로 진행되며 수준별로 받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필수수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회과학일본어의 경우, 캠퍼스아시아 학생 4명과 G30이라는 나고야대 유학생 프로그램 학생 2명의 총 6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 수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메이트 간의 사이도 그 어느 수업보다 돈독했고, 담당 교수로부터 더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아카데미 일본어와 비즈니스 수업 역시, 직접 소논문을 쓰고 비즈니스 발표를 하면서 일본어 실력을 키우게 되었다.

나고야대학교에서의 한 학기를 지내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일본은 학문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역도 아마테마하며, 유학생 대상의 별도 학부 프로그램(G30)을 운영하는 점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학부생으로 하여금 대학원생 수업을 단순히 청강이 아닌 수강이 가능하게 한 점과, 6~7명 남짓한 인원으로도 수업을 개설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학기에 개설될 캠퍼스아시아 필수과목은 법학 관련 과목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본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기숙사 생활

나를 비롯한 한국, 중국의 9명의 캠퍼스아시아 일본파견 학생들이 배정된 기숙사는 International Residence Yamate라는 기숙사였다. 남녀 각각 총 8명이 한 유닛에 거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아마테 기숙사는 나고야대의 여러 기숙사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나고야대학교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 유닛의 8명 각자가 1인실을 사용하며, 화장실과 샤워실,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처음 아마테 기숙사에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공동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일본에 도착해 기숙사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 괜한 걱정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과 샤워실, 부엌 모두 8명이 사용해도 넉넉할 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오히려 혼자가 아닌 8명이 함께 나누며 산다는 점에서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아마테 기숙사에는 8명의 학생 튜터와 여러 관리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기숙사 보안도 철저하여 외부인의 침입이나 도난에 대한 우려 없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4) 유학생과의 교류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으로 공부하러 온 친구들과 많이 교류하게 되었다. 나고야대학교에는 유학생센터라고 불리는 행정처와 건물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 유학생들이 교류하기 매우 편한 환경을 제공했다. 유학생센터는 학기 중 여러 행사나 파티, 홈스테이 등을 주최하기도 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우리들의 일본 적응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다. 수업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모두 유학생들이었기에, 유학생 센터를 통해 이들과 수업 외의 시간도 함께함으로써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4. 소감 및 반성, 개선점

4개월 남짓한 일본생활, 1학기를 일본에서 보내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그동안 일본에 대해 막연히 느꼈던 편견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한국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점들을 이곳 일본에 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자 일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에서 손꼽은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이유 또한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고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대형 카페 체인점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카페 문을 열고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 오셨다. 이를 본 카페 점원은 손살같이 문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자리까지 안내하고, 메뉴판을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가 커피를 주문하자 손수 거스름돈을 가져다 드리고, 정말 환한 미소와 함께 커피 역시 직접 자리까지 가져다 드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눈앞에 펼쳐졌던 이 장면은 한국과 일본의 현실을 비교하게 했다. 사람이 많은 시끌벅적한 대형 카페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혼자 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일본이 가진 경쟁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일본인 특유의 조심하는 성격과 가끔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은 외국인 신분의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다양한 국적의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 일본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본인 친구가 몇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나 유학생 센터를 통해 좀 더 일본인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파견된 학생은 법학대학의 전공과목만을 수강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물론 캠퍼스아시아의 취지가 동아시아의 공통법 제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법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20대의 학부생들은 아직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폭넓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의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수업을 듣는다면, 이것이 일본 법 관련 과목들과 결합하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년 남짓한 일본 파견 생활 중에 벌써 4개월이 지났고, 만 19세의 나이로 일본에 왔던 나는 어느덧 인생의 봄날이라는 20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남은 일본에서의 7개월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꼼꼼한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나의 미래와 캠퍼스아시아 사업의 목표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한국에 돌아간 후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즐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낼 것을

다짐하며 수기를 끝맺으려 한다. 몇 달 후 이 수기를 돌아보며, 내가 세운 결심들을 모두 지켰노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기를 소망한다.

2013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박레지나 대한민국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사업단 : 동서대 - 광동외어외무대 - 입명관대)

저는 올해로 거의 2년째, 동서대학교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어적인 훈련도 거의 끝났고, 4년간 시행될 이번 프로그램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지난 2년간의 캠퍼스 생활을 돌아켜보니 다른 대학교 2학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13년 한해에는 동서대학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학생대표도 맡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서, 가치관에 혼란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큰 변화도 생기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이 프로그램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기반이 되고, 그동안 겪은 혼란과 어려움이 거름이 되어 한 해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한중일 삼국의 외교관계가 사실상 악화되면서, 그와 반대로 서로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끈끈해지는 저희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각국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취재나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중에서

도 늘 빠지지 않고 받던 질문 중 한 가지가 바로 나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늘 받던 질문이지만 처음에는 무엇을 대답할지 몰라 망설이고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작년 7월 말,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동북지역의 지진 쓰나미 피해지역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시기에 한국에서는 방사능 공포가 극에 달해있었습니다. 그러한 보도를 접한 한국 학생들은 견학을 가려하지 않았고, 교수님들이 우리가 방문하는 곳은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고 조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교수님에게 납득 시켜보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신문사에도, 어느 블로그에도 정확한 출처는 빠진 채 그랬다더라, 하는 정보만이 난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기관도, 누구도 정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정보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꾸중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방사능 공포에 밀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쓰나미 피해지역의 참담한 현장을 보고나서 고작 그러한 정보 때문에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쓰나미 피해지역을 견학 하고 난 뒤, 제가 일본측 교수님을 찾아가 한국 학생들 전체를 대신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지금도 가장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초등학교 정보와 사회 과목 교과서에서 나올법한 말을 21살이 되어야 비로소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이 뉴스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과장되어있으며, 어느 정도 편향되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정보습득능력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한중일 삼국의 인문학 리더로서 함양해야하는 중요한 덕목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삼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시점에, 각국에서 언론의 편향되고 자극적인 보도를 보면서도, 그중 사실만을 추려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겪은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겪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큰 변화 중 하

나입니다. 작년 2월, 처음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중국에서 공동캠퍼스의 막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중국에 갔지만, 생활이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 다. 20년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친구와 한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양과 같이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가 아닌 비슷한 범주의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섬세한 차이가 발생하곤 해, 그것이 문화차이라는 인식보다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인식하기 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왜 이 친구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불만을 가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일본, 한국으로 1년간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이 차이가 곧 그들의 문화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동안 내가 이문화(異文化)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에 대해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나의 문화적 가치관은 유지하되,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와 문화차이를 넘어서야만 진정한 차세대 동아시아 인문학리더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있을 또 한 번의 공동캠퍼스 생활에서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들은 혼자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부딪쳐야 사고(思考)가 열릴 수 있는, 피부로 습득하며 알아나 가야만 하는 경험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캠퍼스아시아의 인문학 수업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삼국에서 1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역사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였는데, 이 수업에서는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역사를 배우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배우는 중국역사, 일본역사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겠지만, 각국에서 그나라의 언어로 된 교과서로 현

자인 교수님에게 배우다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어느 교수님께서 일본교과서의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삼국 교과서 기술 내용을 비교하면서 저희에게 객관적이고 폭 넓은 역사인식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2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인문학 특강 및 각종 특강, 인문학 포럼을 통해 어학에만 집중하던 저의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인문학 특강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인문학 리더분들이 직접 저희들을 위해서 특강을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직접 다른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고 있던 저로서는 매우 흥미롭고 많은 깨달음을 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업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냥 생활하면서는 느끼기 힘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들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에 대한 체험이 역으로 자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각종 발표수업은 저에게 언어능력의 향상만큼이나 큰 변화가 있던 수업이었습니다. 대학에 막 입학했던 시절에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많이 미숙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발표를 보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 또한 많이 향상되어 제가 불과 2년 만에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년간의 수업과 생활은 저에게 있어 커다란 배움의 기회였고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가시적인 변화 이외에도,

그 언어권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문화와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알고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현지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로서 함양해야할 몇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라는 것이 언어를 뛰어넘은 정서의 교류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 더욱 보람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좋았던 점, 배울 점이 참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문화 충돌입니다. 문화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예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중국의 식당에서 일본인 친구와 식사를 할 경우,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예절에 따라야 할지, 일본인 친구를 배려해 일본의 식사예절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중국에 체류하는 중이므로 중국의 식사예절을 따라야 하는지 등 가치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으며, 그러한 문제로 인해 결국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는 앞으로 경험할 1년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1,2학년 때에는 어학능력에 집중하느라 인문학적인 수업을 많이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동서대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르면, 1,2학년 때에는 어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2년간의 어학 학습을 바탕으로 3학년 때부터 각국에서 자국어로 인문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인문학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2학년 때부터 모국어로 인문학을 다

워 그에 대한 상식의 기반을 마련한 뒤, 3학년 때 각국 언어로 그것을 심화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사나 문화에 대한 수업은 1,2학년 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더 나아가 철학과 인문학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서대학교의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동아시아의 차세대 인문학 리더가 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인문학 리더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자신이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적 리더가 되기 위한 소양은 교수님들이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학문적 탐구 안에서 찾아야 할 것들이고, 인문학 특강의 형태로 교수님들이 꾸준히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것을 1학년 때부터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인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수업의 형태로 커리큘럼을 편성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캠퍼스 아시아에 소속되어 반을 달려온 지

금, 막 대학교에 입학했던 2년전의 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낸 자신을 보고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단순히 일본어와 중국어 자체를 배우는 것 만으로도 벅차 미래의 목표는 생각도 못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누리게 된 만큼, 제 후배들이 저와 같은, 혹은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국가 장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반환점을 돌아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 달려야 하는 만큼, 자기자신을 재정비해서 좋은 프로그램의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서대학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동아시아의 차세대 인문학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 나은, 최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uestionnaire of CAMPUS Asia



Kurotobi Kenji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Tokyo
(Seoul National University-Peking University-University of Tokyo)

- Motivation to participate and preparation process

I joined the CAMPUS Asia program to study more about relations among three countries. My motivation is to acquire mor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 Asian Integration in terms of Financial Cooperation. I am interested in the Asian Financial Market, the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such as the CMI.

The professor of East Asia relations, who worked in METI, gave me insight into the East

Asian relations. He always said to me that the young people have an open mind for change in East Asia. His lecture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lecture in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GraSPP), the University of Tokyo, and focused on the role-play negotiations, in which students were allocated in the specific countries to negotiate the issues which actually happened in the past. And, He gave advice to me to join the CAMPUS Asia Summer School last summer. Summer School in Seoul was fascinating I could take a lecture by the professors in GSIS, SIS, and GraSPP, and all of them had deep knowledge and gave varied implication among the 3 countries. These experiences made me decide to challenge the CAMPUS Asia Program.

- Experiences at SNU/in Seoul, Academic Life (courses taken), Campus life

The experiences at SNU was exciting. GSIS students are highly active in studying their own



academic areas.

I took the three courses, the Korean Foreign Relations, Current Japanese Politics, Research Methodology, and Regional Integrations. I would explain the most interesting class, Japanese Politics because the professor Park Cheolhee gave me a lot things important to study politics through the lecture. In the class, we discussed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reading assignment which had over 100 pages, and present the resume of the reading material once in a semester. The lecture covered the Japanese political party, bureaucracy, neighborhood group, policy making process, and so on. The Professor Park Cheolhee had deep insight of Japanese politics and his analysis was so sharp that I can say Japanese students should take his class. He encouraged us to make our own logical ideas on the political issues with evidence no matter how simple the ideas were. One day, he asked us why DPJ has collapsed in a short time. I answered that Japanese media pointed out the lack of DPJ policy. But he disagreed with it by saying I grasped the



small factor for the big result. He stated that the reason was the DPJ failed to continue to ally with the other parties. And, he threw a question of why the First Term of Abe cabinet collapsed for a short time. I could come up with some factors, but all of them were small or just the fact often talked by news. He said Abe did not understand general politics and pursued for too many minor policies. His argument was clear, grasped the big picture of Japanese politics, he made use of logical evidence. I learned importance of understanding big picture of the changes. Second, I could learn how students should research politics because he taught the way in which each professor in the reading materials made an argument. It was helpful for learning the way to write my own paper. Third, I could compare the politics among 3 countries because Chinese students of CAMPUS Asia and the Korean students in GSIS explained the politics in Korea and China. Chinese students in CAMPUS Asia were active and highly interested in Japanese politics, so they asked many things about Japanese politics in comparison with



Chinese politics. I was also asked by Chinese students about what I think about Prime Minister Abe's policy toward Korea and China. I could say that I could deepen my knowledge.

They are willing to organize the events by themselves. They have the Round Table session every week, in which we talk about one topic in the specific country or region. I attended the Japanese RT, Korean RT, CAMPUS Asia RT, and Developing Countries RT, but all of them were quite interesting. Topics are the current issues in Japan, such as NEET, shotgun marriage, and so on. And, in CAMPUS Asia RT, I enjoyed discussing the current issues among three countries. And, I could have lunch box in every session, which could be a cost saving, and make many friends participating in every RT.

Plus, I could enjoyed learning Korean Language in LEI with the students from varied countries.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were kinds and their lecture was humorous. When I study the number in Korean, the teacher taught by letting us swing the arm like Tae kwon do.

Their unique lectures made me learn easily the number in Korean.

- Your impression of visiting country

First, they are good at expressing their own emotions more clearly than Japanese do. The Japanese people like to be silent and avoid emitting their own emotion. But, Korean People like to express their emotions. When they get surprised, they changed their face dramatically by saying "진짜!?". I enjoyed seeing their facial expression while talking with friends.

Second, the Korean people really like spicy foods. In almost all the time of having food, I have seen something spicy. Even when I found the Japanese food in the restaurant, I found out the taste is changed to spicy. So in the first month, I had difficulty in having the spicy food because I have not used to having spicy food. I can eat the spicy food with ease, though I have runny nose even now.



- Tips on living abroad

I think those who join the CAMPUS Asia Program mainly have the experience in somehow living abroad, and I have limited knowledge on living abroad. So I focus on advice for living in Korea. The important thing is getting used to having spicy food. It is first step because unless you cannot have spicy food, you have limited number of food in Korea. And, I strongly recommend you study Korean beforehand, because you can study advanced Korean Language in SNU and you can broaden your chance to talk with Korean. To my regret, I could not attend the events spoken in Korean, some of which had interesting topics such as the Japan-Korea relations.

-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gram

I think all staffs and student related in CAMPUS Asia Program did the great job for making the environment for CAMPUS Asia students to focus on studying. I had the really good time to study as well as enjoying the Seoul to my heart's content. If possible, having the connection with the other group like DIDP and Commerce because I had few times to meet these students in the lecture. In my case, I have some friends of each course since I attended some RTs, and I could join the special talk session or events held for their courses. So there is room for trying some approaches such as putting the representative of CAMPUS Asia on

the student council or having the CAMPUS Asia events in combination with the other courses.

- Words of wisdom for future participants (comments, tips...)

I am quite sure you have the most precious time in your life through tackling the lecture of the professor in GSIS. You can brush up your academic knowledge as well as the skills required for leading the world.

I have a few pieces of advice before starting to study there. First, you should get advice from the CAMPUS Asia students in your school. It is quite important to get advice from CA students because you can shape your plan of lectures more specifically, and you might find the professors who really give the lecture for your interest. In fact, while I am in the University of Tokyo, I asked a few friends of mine in GSIS about what they recommend in studying in GSIS. All of them answered the Japanese politics class by Professor Park Cheol hee, even if I am Japanese student. But in retrospect, I realized that this class was the most interesting class for me, and if I had not ask them, I would have not decided to take the lecture. Second, I recommend you have broader relations in GSIS. It is true that CAMPUS Asia Program was to study with students selected from Peking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Tokyo, but you have a chance to know about Asia relations by talking with those who do not join CA Program. I could make many Korean and Chinese friends in GSIS,

who also gave me good insight on the features of each country.

Third, you should attend the conference held by SNU. SNU, especially GSIS holds the mountainous conferences, in which you can find the guests leading the world. In the fall semester, I could meet Christine Madeleine Odette Lagarde, the Managing Director (M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t was my honor that I could shake hands with Lagarde after the session.

In the end, I would say thanks to all the

professors, staffs, and students in GSIS, and CAMPUS Asia teammate in Peking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Tokyo. I would study further on the 3 countries relation in Peking University in the spring semester, and I would like to make the best use of what I learned in GSIS.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work for the job related with the East Asia Relations.

